



2026. 6.

국회에산정책처 | 대외경제동향 & 이슈 | 제6호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NAB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CONTENTS

세계경제 동향

주요 선진경제 동향

주요 신흥경제 동향

대외경제 이슈 | 생성형 AI와 생산성 - 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총괄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작성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황 진 솔 경제분석관
 김 경 수 경제분석관
 이 두 영 경제분석관
 강 은 정 경제분석관

지원 이 인 희 행정실무관
 안 소 정 자료분석연구원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총괄과 (☎ 02-6788-37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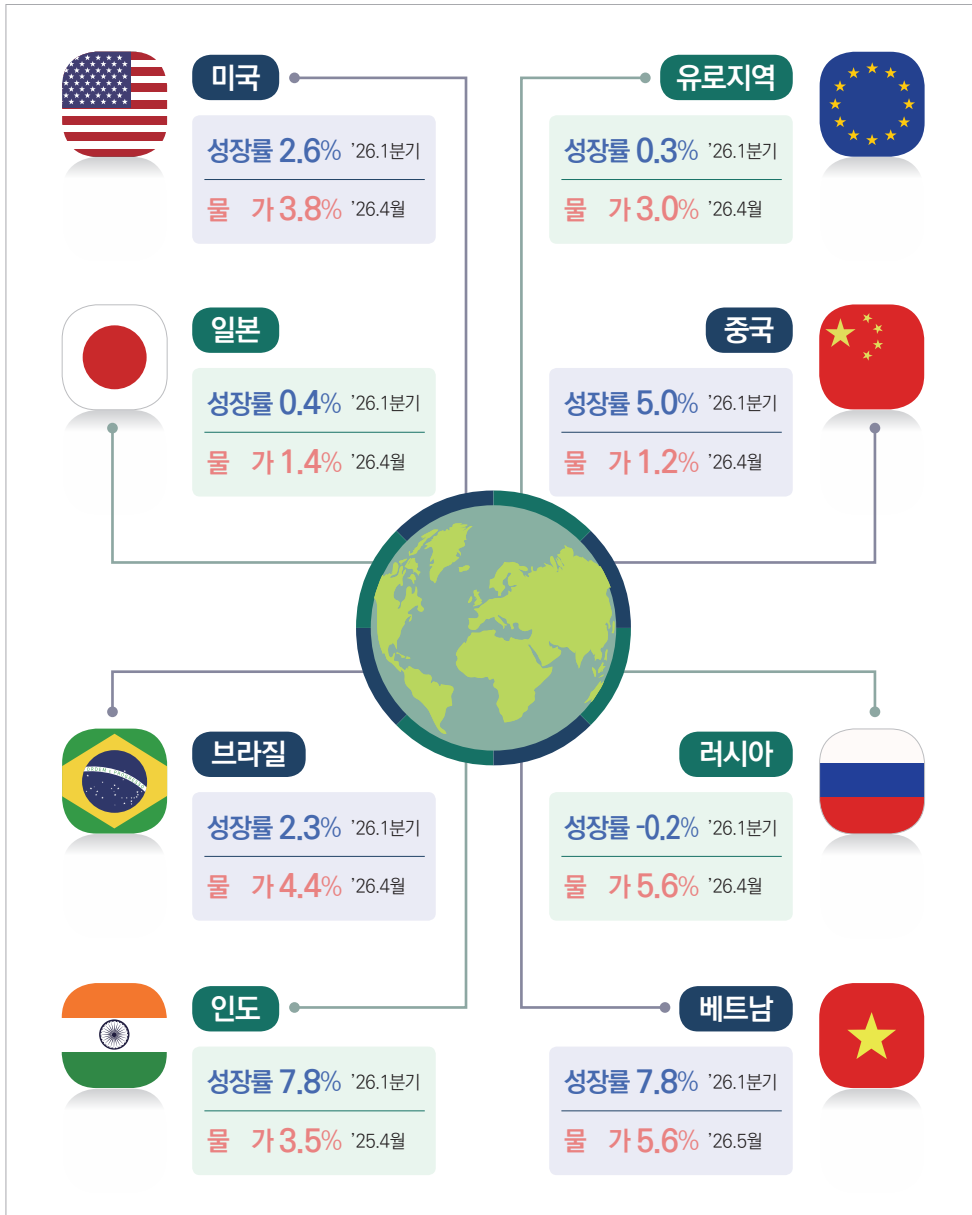
대외경제동향 & 이슈

I	세계경제 동향	
	1. 경제 동향	10
	2. 금융시장 동향	12
II	주요 선진경제 동향	
	1. 미국	19
	2. 유럽	23
	3. 일본	29
III	주요 신흥경제 동향	
	1. 중국	33
	2. 브라질	38
	3. 러시아	42
	4. 인도	46
	5. 베트남	50
IV	대외경제 이슈	
	생성형 AI와 생산성 -	
	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56

I

대외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주: 2026년 1분기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1.6% 성장, 유로지역은 전기대비 -0.2% 성장, 일본은 전기대비 0.5% 성장

세계경제 동향 종합

■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

- (선진경제) 미국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유로지역은 회복세가 약화되고 일본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국가별 경기양상이 차별화
 - (미국) 민간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었으나, 소비지출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상존
 - (유로지역)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회복세가 둔화
 - (일본) 대외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 (신흥경제) 주요 신흥국은 대체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
 - (중국) 수출 회복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시현
 - (브라질)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 완화로 경제성장세 개선
 -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산 정체 및 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약화
 - (인도)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베트남)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갈등이 재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과 일본 상승, 유로존 하락,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 달러인덱스 상승

- 5월말 미국과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채 공급 확대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유로존 국채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등으로 하락
- 5월말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기술 기업의 주가 강세 등으로 상승
 - ※ 유럽중앙은행(6.11)과 일본은행(6.16.)은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고, 미 연방준비제도(6.17.)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5월말 달러인덱스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중동지역 불확실성 지속, 유럽의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상승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가. 세계경제 주요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미국	경제성장률 ¹⁾	2.8	2.2	-0.6	3.8	4.4	0.5	1.6
	산업생산	-0.7	1.1	1.0	0.3	1.6	1.7	1.0
	소비자물가	2.9	2.4	2.7	2.4	2.9	2.8	3.1
	실업률	4.0	3.9	4.4	4.1	4.5	3.7	4.6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²⁾	0.8	1.4	0.6	0.1	0.3	0.2	-0.2
	산업생산	-3.0	1.6	0.5	1.1	1.7	2.0	-0.8
	소비자물가	2.4	2.1	2.3	2.0	2.1	2.1	2.0
	실업률	6.4	6.4	6.6	6.3	6.4	6.2	6.5
일본	경제성장률 ²⁾	-0.2	1.1	0.5	0.3	-0.6	0.2	0.5
	산업생산	-2.6	-0.3	1.3	-0.8	-1.5	-1.0	0.9
	소비자물가	2.7	3.2	3.8	3.4	2.9	2.7	1.4
	실업률	2.5	2.5	2.5	2.5	2.5	2.5	2.7
중국	경제성장률	5.0	5.0	5.4	5.2	4.8	4.5	5.0
	산업생산	5.8	5.9	6.5	6.2	5.8	5.0	6.1
	소비자물가	0.2	0.0	-0.1	0.0	-0.2	0.6	0.9
	실업률	5.1	5.2	5.3	5.0	5.2	5.1	5.3
브라질	경제성장률	3.4	2.3	3.1	2.4	1.8	1.8	2.3
	산업생산	3.1	0.6	1.5	0.5	0.2	-0.7	0.5
	소비자물가	4.4	5.0	5.0	5.4	5.2	4.5	4.1
	실업률	6.9	6.0	6.8	6.2	5.6	5.2	5.8
러시아	경제성장률	4.3	-	1.3	1.0	0.8	1.0	-0.2
	산업생산	5.0	1.3	0.0	1.5	1.3	2.2	5.3
	소비자물가	8.5	8.7	10.1	9.8	8.3	6.6	4.2
	실업률 ³⁾	2.5	2.3	2.3	2.2	2.2	2.1	2.1
인도	경제성장률 ⁴⁾	7.1	7.7	7.0	6.8	8.3	8.0	7.8
	산업생산	4.4	3.9	4.4	2.3	4.3	3.2	5.0
	소비자물가	5.0	2.2	3.7	2.1	1.7	0.8	3.1
	실업률	3.2	5.4	7.9	5.4	5.2	4.8	5.0
베트남	경제성장률	7.1	8.0	7.0	8.2	8.3	8.5	7.8
	산업생산	8.4	9.2	7.8	10.6	8.9	9.5	9.0
	소비자물가	3.6	3.3	3.2	3.3	3.5	3.4	3.2
	실업률	2.3	2.2	2.2	2.2	2.2	2.2	2.2

주: 1) 전기대비연율(%)

2) 전기대비(%)

3) 도시지역 실업률

4) 2024/25년, 2025/26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IMF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나.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지표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4월	5월
정책 금리 (%)	미국	5.27	4.33	4.50	4.50	4.25	3.75	3.75	3.75	3.75
	유로존	4.13	2.38	2.65	2.15	2.15	2.15	2.15	2.15	2.15
	일본	0.13	0.52	0.50	0.50	0.50	0.75	0.75	0.75	0.75
	중국	3.34	3.03	3.10	3.00	3.00	3.00	3.00	3.00	3.00
	브라질	10.96	14.56	14.25	15.00	15.00	15.00	14.75	14.50	14.50
	러시아	17.83	18.92	21.00	20.00	17.00	16.00	15.00	14.50	14.50
	인도	6.50	5.77	6.25	5.50	5.50	5.25	5.25	5.25	5.25
	베트남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한국	3.40	2.60	2.75	2.50	2.50	2.50	2.50	2.50	2.50
국채 금리 (10년물,)	미국	4.2	4.2	4.2	4.2	4.2	4.2	4.3	4.4	4.5
	독일	2.3	2.6	2.7	2.6	2.7	2.9	3.0	3.0	3.0
	일본	0.9	1.6	1.5	1.4	1.7	2.1	2.4	2.5	2.7
	중국	2.2	1.7	1.8	1.7	1.9	1.8	1.8	1.8	1.7
	브라질	6.9	14.1	15.1	13.5	13.7	13.7	14.0	14.0	14.1
	러시아	14.5	15.0	15.3	14.7	14.9	14.4	14.0	14.0	14.1
	인도	7.0	6.5	6.6	6.3	6.6	6.6	7.0	7.0	7.0
	베트남	2.8	3.4	3.1	3.2	3.6	4.0	4.2	4.2	4.3
	한국	3.2	2.9	2.8	2.8	2.9	3.4	3.9	3.9	4.1
주가 (포인트)	미국 Dow Jones	40,335	44,736	42,002	44,095	46,398	48,063	4,6342	4,9652	51,032
	독일 Dax	18,388	23,415	22,163	23,910	23,881	24,490	22,680	24,292	25,105
	일본 Nikkei	38,387	42,381	35,618	40,487	44,933	50,339	51,064	59,285	66,330
	중국 상해종합	3,059	3,592	3,336	3,444	3,883	3,969	3,892	4,112	4,069
	브라질 BOVESPA	128,245	140,051	130,260	138,855	146,237	161,125	187,462	187,318	173,787
	러시아 MOEX	3,013	2,837	3,013	2,874	2,865	2,767	2,776	2,658	2,566
	인도 SENSEX	77,226	80,795	77,415	83,606	80,268	85,221	71,948	76,914	74,776
	베트남 VN30	1,283	1,621	1,364	1,478	1,863	2,031	1,830	2,023	1,997
	한국 KOSPI	2,632	3,163	2,481	3,072	3,425	4,214	5,052	6,599	8,476
환율	달러/유로	1.08	1.13	1.08	1.18	1.17	1.18	1.15	1.17	1.16
	일본 엔/달러	152	150	149	144	148	157	159	157	159
	중국 위안/달러	7.18	7.17	7.26	7.16	7.11	7.03	6.92	6.86	6.82
	브라질 헤알/달러	5.39	5.57	5.71	5.43	5.32	5.48	5.21	4.98	5.06
	러시아 루블/달러	92.7	82.5	83.7	78.5	82.9	78.2	81.3	74.9	71.0
	인도 루피/달러	83.7	87.3	85.5	85.8	88.8	89.8	93.8	94.9	95.0
	베트남 동/달러	25,065	24,993	24,837	25,052	25,187	25,121	25,102	25,113	25,139
	한국 원/달러	1,364	1,422	1,467	1,356	1,402	1,435	1,513	1,476	1,506
	달러 인덱스	104.2	100.8	104.2	96.8	97.8	98.3	100.0	98.1	98.9
상품	IMF국제상품가격지수	164.8	167.2	170.9	163.4	165.5	169.1	194.5	214.4	216.6
	국제유가 ³⁾	79.2	67.7	74.5	66.3	68.0	62.1	78.6	103.0	104.2
금융위험 지표	세계 불확실성 지수 ⁴⁾	132	538	478	782	532	359	355	198	200
	미국 신용스프레드(%)	1.6	1.7	1.8	1.8	1.7	1.7	1.8	1.7	1.6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	3.6	3.4	4.0	3.7	2.9	2.7	3.0	2.6	2.6

주: 1)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2) 유로중앙은행(ECB) 기준금리는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미 Baa 회사채와 미 10년 국채 수익률 차, 신흥국채권 가산금리는 J.P. Morgan EMBI+를 의미

3) WTI, Dubai, Brent 3종 평균

4) Ahir, Bloom, and Furceri(2022)

자료: 한국은행, CEIC, FRED, Bloomberg, Haver

세계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

- (생산) '26.2월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전월대비 0.3%)
- (교역) '26.2월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전월대비 -1.6%)
- (물가) '26.3월 세계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2% 상승
- (불확실성) '26.4월 세계 불확실성 지수는 83,569로 전월대비 1.8% 하락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5월말 국채(10년) 금리는 미국과 일본 상승, 유로존 하락,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 달러인덱스 상승

- 5월말 미국과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전월말 대비 각각 0.15%p, 0.14%p 상승하였으나, 유로존 국채 금리는 0.10%p 하락
 - ※ 유럽중앙은행(6.11)과 일본은행(6.16.)은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고, 미 연방준비제도(6.17.)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5월말 선진국과 신흥국 주가는 전월말 대비 각각 4.4%, 9.5% 상승
- 5월말 달러인덱스는 전월말 대비 0.9% 상승
- 5월 IMF 국제상품가격지수(216.6)는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01 경제 동향

■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

- (성장) 세계 경제는 AI·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투자 확대와 주요국의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 전개양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성장세를 제약

- 미국과 유럽은 AI·반도체·청정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소비진작과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향후 갈등이 재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 IMF('26.4월)는 2026년 세계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26.1월 대비 -0.2%p)하였으며, 선진국은 1.8%, 신흥국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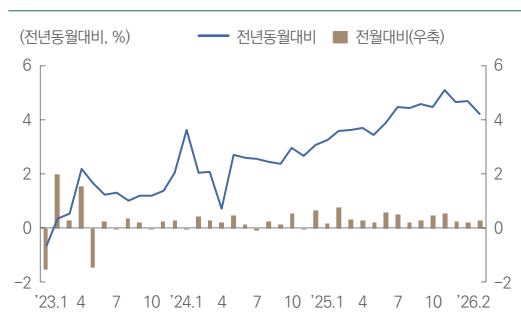
- (생산) '26.2월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2% 증가(전월대비 0.3%)

- 세계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2월) 4.7 → ('26.1월) 4.7 → (2월) 4.2

- (교역) '26.2월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전월대비 -1.6%)

- 세계 교역규모(전년동월대비, %): ('25.12월) 12.3 → ('26.1월) 9.0 → (2월)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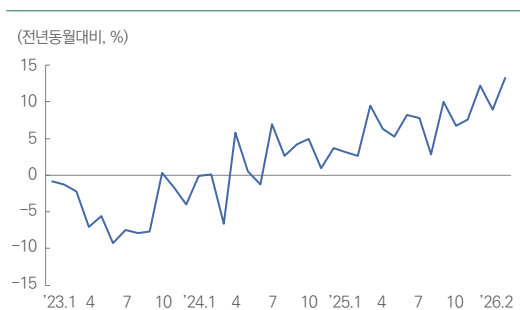
| 그림 1 | 세계 산업생산 증감률



주: 계절 조정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그림 2 | 세계 교역무역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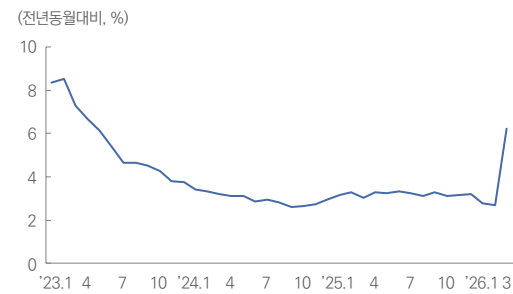
주: 교역규모(수출+수입)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Economy: Steady amid Divergent Forces" (January,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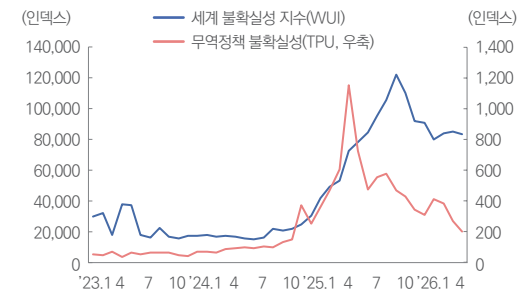
- (물가) '26.3월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²⁾은 전년동월대비 6.2% 상승
 - 세계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1월) 2.8 → (2월) 2.7 → (3월) 6.2
- (불확실성) '26.4월 세계 불확실성 지수³⁾는 83,569로 전월대비 1.8% 하락하였으며,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⁴⁾도 198로 전월대비 하락
 - 세계 불확실성(인덱스): ('26.2월) 83,845 → (3월) 85,122 → (4월) 83,569
 - 세계 무역정책 불확실성(인덱스): ('26.2월) 384 → (3월) 269 → (4월) 198

| 그림 3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가중 중간값(weighted median), 계절조정
자료: World Bank

| 그림 4 | 세계 불확실성 지수



주: 무역정책 관련 기사 비중이 1%인 경우를 100으로 정규화
자료: Ahir, Bloom, and Furceri(2022), Caldara *et al.*

- 2) 세계 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분포에서 가중중앙값을 산출한 것으로, 일부 초고물가 국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단순 평균보다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3)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 World Uncertainty Index)는 IMF와 스탠퍼드대 등이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별 경제 보고서나 주요 언론 기사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빈도를 측정해 수치화한 글로벌 경제 지표
- 4)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는 Caldara *et al.*(2020)이 개발한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관세, 무역협정 및 수출입 규제 등 무역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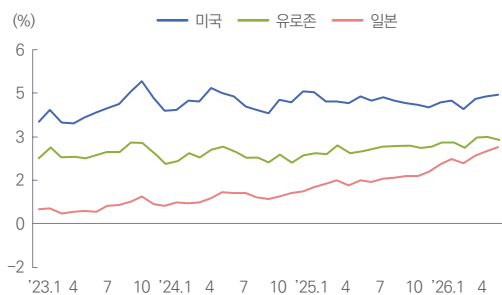
[02 금융시장 동향

가. 채권시장

■ 국제 금융시장에서 5월말 「국채(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미국과 일본 상승, 유로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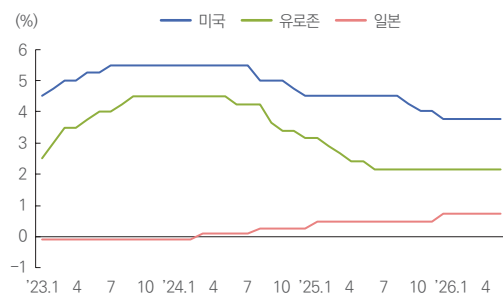
- '26.5월말 미국과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채 공급 확대 등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유로존 국채 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등으로 하락
 - 미국 국채 10년물(%): ('26.3월) 4.30 → (4월) 4.40 → (5월) 4.45
 - 유로존 국채 10년물(%): ('26.3월) 3.00 → (4월) 3.04 → (5월) 2.94
 - 일본 국채 10년물(%): ('26.3월) 2.37 → (4월) 2.52 → (5월) 2.66
- 미 연방준비제도(FRB)는 2026년 6월 정례회의(FOMC)에서 기준금리(FFR)를 3.50~3.75%로 동결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상
 - 미 연준은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유럽중앙은행은 6월 11일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2.15%에서 2.40%로 0.25%p 인상
 - 일본은행은 완전한 경제 회복, 물가 상승 압력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

| 그림 5 | 주요국 국채(10년)금리



주: 국채 금리는 월말, 유로존은 독일 국채 금리 기준
자료: Morningstar

| 그림 6 | 주요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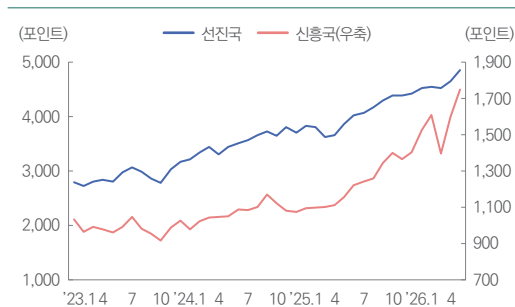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Morningstar

나. 주식시장

■ '26.5월말 전세계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상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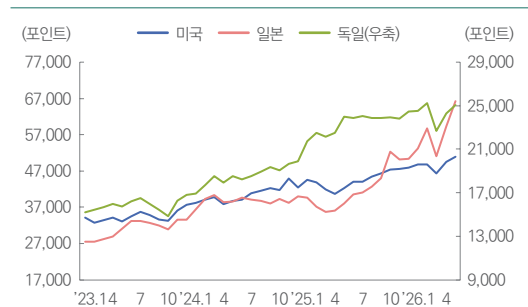
- 5월말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는 글로벌 AI 및 반도체 기술 기업의 주가 강세 등으로 전월말 대비 각각 4.4%, 9.5% 상승
- 미국과 일본은 AI 및 반도체 기업의 수요 확대, 독일은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 완화 등으로 상승
 - 미국 다우존스지수(포인트): ('26.3월) 46,342 → (4월) 49,652 → (5월) 51,032
 - 독일 닉스지수(포인트): ('26.3월) 22,680 → (4월) 24,292 → (5월) 25,105
 - 일본 니케이지수(포인트): ('26.3월) 51,064 → (4월) 59,285 → (5월) 66,330

| 그림 7 | 글로벌 주가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LSEG

| 그림 8 | 주요국 주가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LS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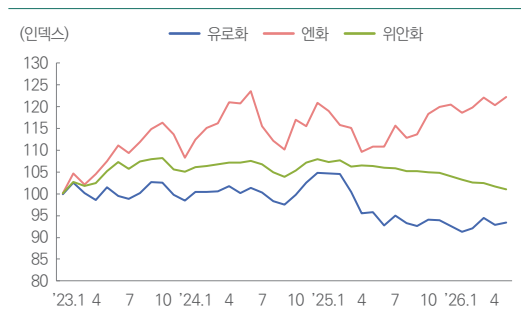
5)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다. 외환시장

■ '26.5월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유로화와 엔화 상승, 위안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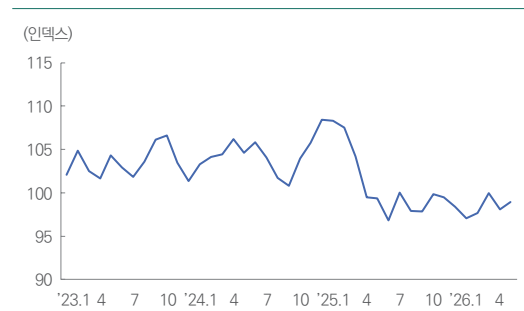
-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중동지역 불확실성 지속, 유럽의 경제 지표 부진 등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였고,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 미국 국채 보유 축소 등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
 - 5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와 엔화의 환율은 전월말 대비 각각 0.5%, 1.6% 상승하였으나 위안화는 0.7% 하락
 - 달러인덱스⁶⁾는 전월말 대비 0.9% 상승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26년 3월 6,52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31억 달러 감소⁷⁾

| 그림 9 |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주: 1. 2023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10 | 달러인덱스



주: 1973년 3월 = 100
자료: Bloomberg

라. 상품시장

■ '26.5월 「국제 상품가격」은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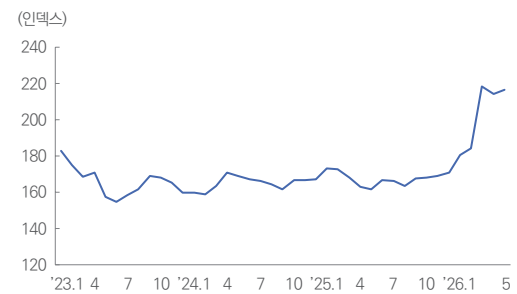
- '26.5월 IMF 국제상품가격지수⁸⁾는 216.6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 IMF 국제상품가격지수(2016=100): ('26.3월) 218.8 → (4월) 214.4 → (5월) 216.6

6)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1973년 3월 = 100 기준)

7) 미국 재무부 자료 Securities(B): Portfolio Holdings of U.S. and Foreign Securities(<https://home.treasury.gov/>, 접속: 2026.6.15.)

8) IMF 국제상품가격지수(IMF Primary Commodity Price Index)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곡물·식품 등 농산물, 산업용 금속 및 귀금속 등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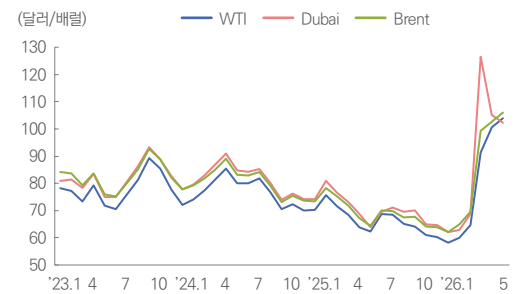
| 그림 11 | 국제원자재(CRB) 지수



주: 2016년=100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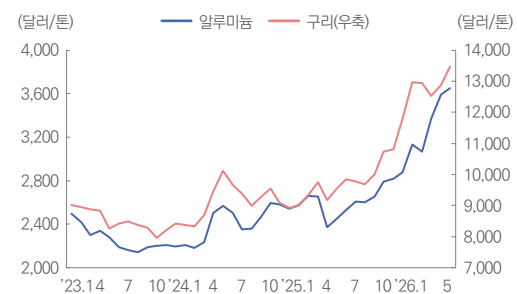
| 그림 12 | 국제유가



자료: IMF

- '26.5월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WTI(달러/배럴): ('26.3월) 91.4 → (4월) 100.9 → (5월) 104.1
 - Dubai(달러/배럴): ('26.3월) 126.7 → (4월) 105.3 → (5월) 102.3
 - Brent(달러/배럴): ('26.3월) 99.4 → (4월) 102.8 → (5월) 106.3
- '26.5월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알루미늄(달러/톤): ('26.3월) 3,373 → (4월) 3,594 → (5월) 3,654
 - 구리(달러/톤): ('26.3월) 12,529 → (4월) 12,891 → (5월) 13,484
- '26.5월 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재고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소맥(달러/톤): ('26.3월) 193.9 → (4월) 202.6 → (5월) 220.9
 - 옥수수(달러/톤): ('26.3월) 213.3 → (4월) 214.5 → (5월) 215.6

| 그림 13 | 주요 비철금속 가격



자료: 런던금속거래소(LME)

| 그림 14 | 주요 곡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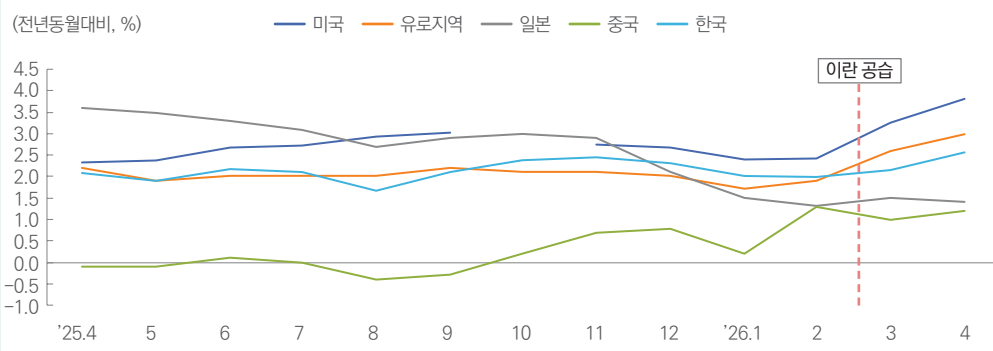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BOX 1] 주요국 인플레이션 현황과 금융시장 영향

■ (현황) 주요국(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한국)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전 세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확대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3.5%에서 4월 3.8%로 확대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2.6%에서 4월 3.0%로 확대
 -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1.5%에서 4월 1.4%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과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물가 상승 압력 발생
 -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1.0%에서 4월 1.2%로 확대
 -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3월 2.2%에서 4월 2.6%로 확대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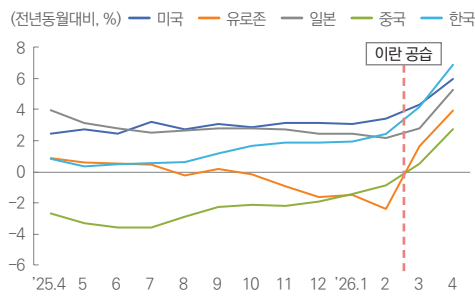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방정부 섯다운에 따라 10월 자료 누락 발생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일본 통계국(SBJ), 중국 국가통계국(NBS), 국가데이터처

■ (요인) 중동 전쟁 장기화 및 달러 강세로 주요국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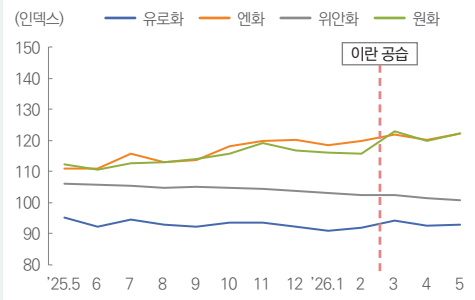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자 비용 증가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확대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인해 원유,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 ※ 주요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4월 기준 미국 6.0%, 유로지역 4.0%, 일본 5.2%, 중국 2.8%, 한국 6.9%를 기록
- 대미 달러 약세는 추가적인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다만, 중국은 대달러 위안화 강세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주요국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주: 1. 2023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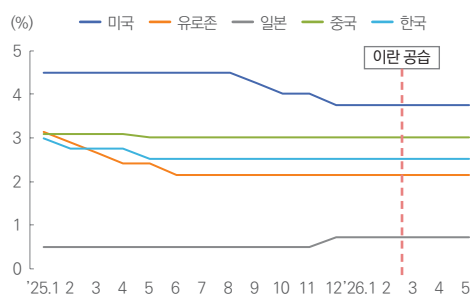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CEIC

■ (영향)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속에서 각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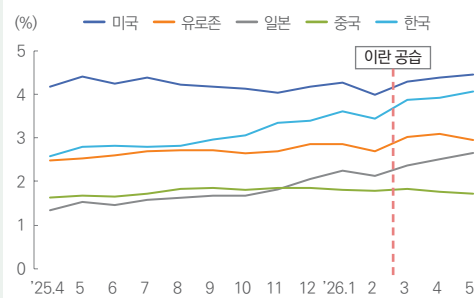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따라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상승
 - 미국(0.2%p), 유로존(0.1%p), 일본(0.4%p), 우리나라(0.5%p) 등 중국(-0.1%p)을 제외하고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 연초(1월말) 대비 상승
- 물가 및 장기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차별화 발생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6월 17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유럽중앙은행(ECB)는 6월 11일 기준금리 0.25%p 인상하며 기조 전환
 -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 지속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는 경기 부양 필요성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이 병존함에 따라 동결 지속 가능성 확대
 - 한국은행은 중동 분쟁 리스크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⁹⁾

주요국 기준금리



자료: FRB, ECB, BOJ, PBOC, 한국은행

주요국 국채(10년) 금리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유로존은 독일 국채 금리 기준

자료: CEIC

9)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 창립 제76주년 기념사," 2026.6.12.

주요 선진경제 동향

■ (미국) 민간투자 및 수출은 확대되었으나, 소비지출 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 상존

- 경제성장률(전기대비연율, %): ('25.3분기) 4.4 → (4분기) 0.5 → ('26.1분기) 1.6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1.0 → (3월) 0.8 → (4월) 1.4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4.2 → (3월) 4.2 → (4월) 4.9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1월) 12.7 → (2월) 14.9 → (3월) 15.2
- 실업률(%): ('26.2월) 4.7 → (3월) 4.3 → (4월) 4.0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6.2월) 2.4 → (3월) 3.3 → (4월) 3.8

■ (유로지역)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회복세가 둔화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5.3분기) 0.3 → (4분기) 0.2 → ('26.1분기) -0.2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1월) 0.4 → (2월) -0.6 → (3월) -2.5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1월) 2.0 → (2월) 1.5 → (3월) 1.0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1월) -7.2 → (2월) -6.9 → (3월) -5.5
- 실업률(%): ('26.2월) 6.4 → (3월) 6.3 → (4월) 6.3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 ('26.2월) 1.9 → (3월) 2.6 → (4월) 3.0

■ (일본) 대외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 경제성장률(전기대비, %): ('25.3분기) -0.6 → (4분기) 0.2 → ('26.1분기) 0.5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4 → (3월) 0.6 → (4월) 2.3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1.4 → (4월) 2.1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4.0 → (3월) 11.5 → (4월) 14.8
- 실업률(%): ('26.2월) 2.6 → (3월) 2.7 → (4월) 2.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5 → (4월) 1.4

[01 미국

미국 경제는 1분기 민간투자 및 수출 확대, 소비지출 둔화 등으로 연간 1.6% 성장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1.6% 상승

- 1분기 성장률은 민간투자, 수출, 정부지출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상승률 확대
-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지출(1.4%)은 전분기 대비 둔화되고, 수입(21.1%)은 큰 폭으로 증가

■ 2025년 4분기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서비스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농림어업 및 광업이 큰 폭으로 성장

- 4분기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가장 큰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2.5% 성장
- 농림어업(17.2%), 광업(6.2%)은 양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3.8%), 건설업(-1.8%), 제조업(-4.2%)은 감소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2.8	2.1	-0.6	3.8	4.4	0.5	1.6
농림어업	5.4	-2.4	-16.9	-0.7	9.8	17.2	-
광업	2.8	0.2	-18.3	29.0	4.3	6.2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2	-1.0	-5.0	-15.0	16.0	-3.8	-
건설업	4.9	1.8	0.9	4.0	-0.8	-1.8	-
제조업	3.0	1.5	-5.9	12.0	5.0	-4.2	-
서비스업	2.8	2.9	0.9	4.2	5.2	2.5	-
소비지출	2.9	2.6	0.6	2.5	3.5	1.9	1.4
민간투자	3.0	1.9	23.3	-13.8	0.0	2.3	7.0
수출	3.6	1.6	0.2	-1.8	9.6	-3.2	13.1
수입	5.8	2.7	38.0	-29.3	-4.4	-1.0	21.1
정부지출	3.8	1.1	-1.0	-0.1	2.2	-5.6	4.4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6년 5월 28일 수정치(Second Estimate) 자료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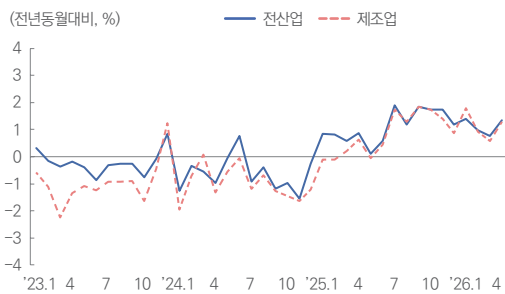
■ (생산) '26.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1.0 → (3월) 0.8 → (4월) 1.4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9 → (3월) 0.6 → (4월) 1.3

■ (소비) '26.4월 「소매판매액」은 7,571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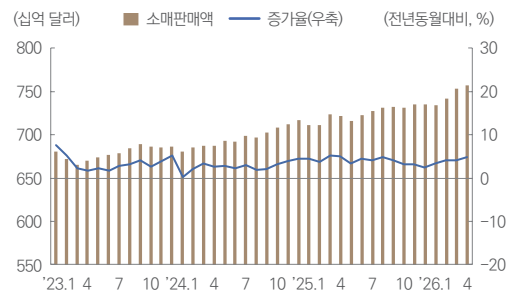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4.2 → (3월) 4.2 → (4월) 4.9

| 그림 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 그림 2 | 소매판매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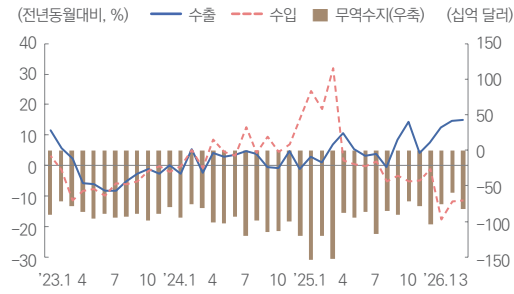
■ (교역) '26.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 「수입」은 11.7% 감소, 「무역수지」는 822억 달러 적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1월) 12.7 → (2월) 14.9 → (3월) 15.2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1월) -17.8 → (2월) -12.0 → (3월) -11.7
- ※ 실질경제성장률은 실질 가격으로 계산되고, 수입은 명목으로 계산되는 이유 등으로 경제성장률 내 수입과 교역 부문 수입의 차이가 발생
- 무역수지(억 달러): ('26.1월) -755 → (2월) -595 → (3월) -822

■ (노동시장) '26.4월 「실업률」은 4.0% 기록하여 전월대비 0.3%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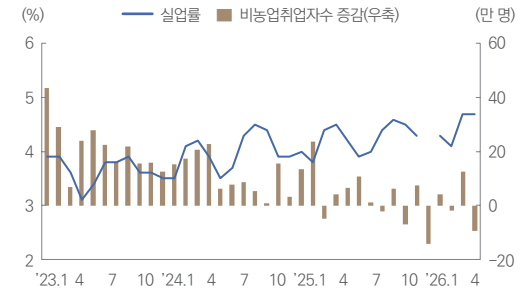
- 실업률(%): ('26.2월) 4.7 → (3월) 4.3 → (4월) 4.0
- '26.4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5만명 증가
 - 비농업 취업자수 증감(전월대비, 만명): ('26.2월) -15.6 → (3월) 18.5 → (4월) 11.5

| 그림 3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 그림 4 |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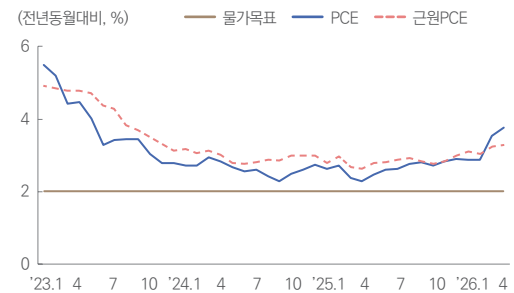
주: 1.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16세 이상) 중 실업자의 비율

2. 연방정부 섯다운에 따라 10월 자료 누락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LS)

■ (물가) '26.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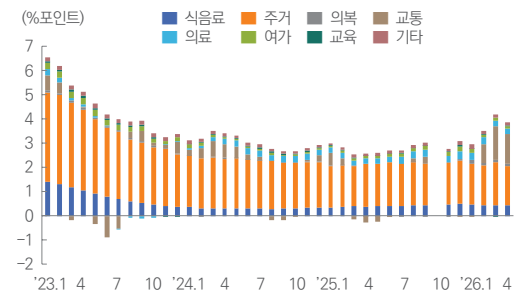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2.4 → (3월) 3.3 → (4월) 3.8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식음료) 0.4 (주거) 1.6 (교통) 1.2 (의료) 0.2
- PCE물가¹⁰⁾ (전년동월대비, %): ('26.2월) 2.9 → (3월) 3.5 → (4월) 3.8
- 근원PCE물가¹¹⁾ (전년동월대비, %): ('26.2월) 3.0 → (3월) 3.2 → (4월) 3.3

| 그림 5 | 물가상승률 및 목표¹⁾

주: 1) 미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경제분석국(BEA)

| 그림 6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주: 연방정부 섯다운에 따라 10월 자료 누락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

■ (금융) 5월말 「주가지수」, 「금리」, 「환율」은 모두 전월말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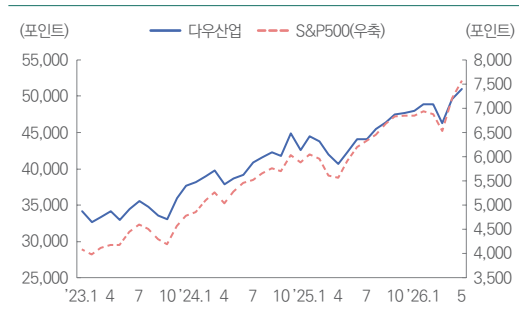
- (주가) 5월말 다우산업(DJIA)지수는 51,032포인트로 전월대비 2.8% 상승, S&P500지수는 7,580포인트로 전월대비 5.1% 상승
- DJIA지수(포인트): ('26.3월) 46,342 → (4월) 49,652 → (5월) 51,032
- S&P500지수(포인트): ('26.3월) 6,529 → (4월) 7,209 → (5월) 7,580

10)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물가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물가지수로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

11) 근원PCE물가지수는 개인소비지출에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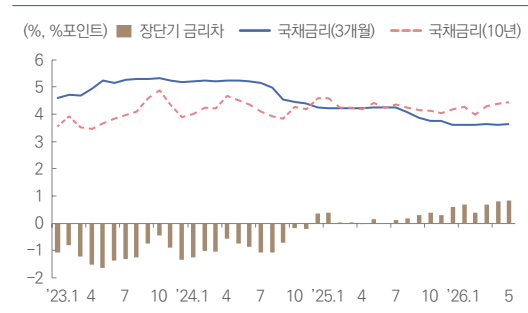
- (금리) 5월 미 국채(10년물) 금리는 4.5%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기준금리)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월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
 - 국채 10년물(%): ('26.3월) 4.3 → (4월) 4.4 → (5월) 4.5
 - 장단기 금리차(%p): ('26.3월) 0.7 → (4월) 0.8 → (5월) 0.9
- (환율) 5월 달러인덱스는 98.9으로 전월대비 0.9% 상승
 - 달러인덱스(인덱스): ('26.3월) 100.0 → (4월) 98.1 → (5월) 98.9

| 그림 7 | 주가지수(DJIA, S&P500)



자료: S&P Global

| 그림 8 | 장단기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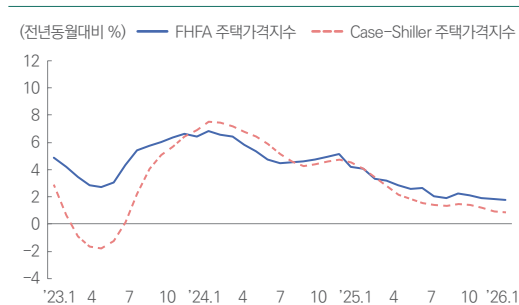


주: 월말 기준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 (주택시장) '26.3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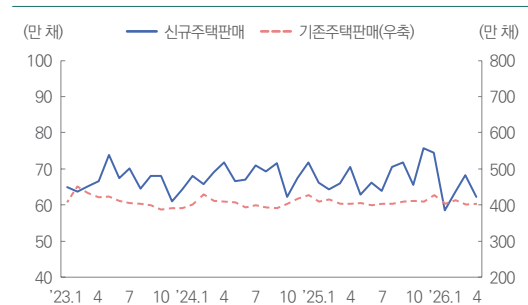
- FHFA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6.1월) 1.9 → (2월) 1.8 → (3월) 1.7
- (주택판매) '26.4월 신규주택판매는 62만채로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하였으나, 기존주택판매는 '26.4월 402만채로 전년동월 수준 기록
 - 신규주택판매(만채): ('26.2월) 64 → (3월) 68 → (4월) 62
 - 기존주택판매(만채): ('26.2월) 413 → (3월) 401 → (4월) 402

| 그림 9 | 주택가격지수 증감률



주: 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20개 대도시 주택 판매 가격 기준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Case-Shiller

| 그림 10 |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



자료: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02 유럽¹²⁾]

2026년 1분기 유로지역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회복세가 둔화

■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0.2% 하락(전년동기대비 0.3% 증가)

- (경제활동별) 제조업(-3.1%)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비스업(0.3%)의 성장세가 더딘 모습
- (지출항목별) 민간소비(0.2%)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지출(-0.8%), 총고정자본형성(-0.3%)이 부진하였고, 수출(-0.2%)은 전기대비 감소하고 수입(0.5%)은 증가
- (국가별) 스페인(0.6%)이 서비스업의 호조로 성장세를 유지, 독일(0.3%)은 소폭 개선, 이탈리아(0.3%)는 정체, 프랑스(-0.1%)는 전기 대비 감소, 영국(0.6%)은 서비스업 생산 호조로 전기 대비 증가

| 표 2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전년동기대비]	0.8	1.5	0.7 [1.7]	0.1 [1.6]	0.3 [1.4]	0.2 [1.2]	-0.2 [0.3]
농림어업	-0.6	1.6	1.8	-0.5	0.6	0.1	-0.1
제조업	-1.7	2.8	2.3	0.4	-0.2	-0.2	-3.1
건설업	-1.8	0.7	1.1	0.1	0.2	0.2	-0.5
서비스업	1.5	1.2	0.4	0.1	0.3	0.1	0.3
민간소비	1.0	1.5	0.4	0.2	0.2	0.4	0.2
정부지출	2.8	1.6	-0.2	0.4	0.7	0.6	-0.8
총고정자본형성	-2.0	4.4	2.7	-1.4	1.2	0.8	-0.3
수출	1.0	2.2	2.8	-0.7	0.7	-0.6	-0.2
수입	0.2	3.7	2.3	-0.2	1.4	0.2	0.5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12) 유로지역(Euroarea)은 국가통화로 유로(Euro)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며, 2026년 6월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의 21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영국은 유로지역과 별도의 경제권임. 이하 본문에서 유럽의 경제동향은 유로지역과 영국의 경제동향을 각각 기술하며,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유로지역의 경제동향을 기술함.

표 3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유로지역	0.8	1.5	0.7	0.1	0.3	0.2	-0.2
독일	-0.5	0.2	0.4	-0.2	0.0	0.2	0.3
프랑스	1.2	0.8	0.1	0.3	0.4	0.2	-0.1
이탈리아	0.8	0.5	0.3	0.0	0.2	0.3	0.3
스페인	3.5	2.8	0.5	0.7	0.6	0.8	0.6
영국	1.1	1.3	0.6	0.1	0.2	0.2	0.6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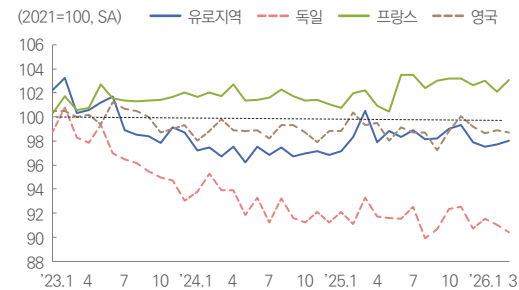
■ (생산) '26.3월 유로지역의 「생산」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지수(2021=100): ('26.1월) 97.5 → (2월) 97.7 → (3월) 98.0
 -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6.1월) 0.4 → (2월) -0.6 → (3월) -2.5
- 독일의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독일 산업생산지수: ('26.2월) 91.0 → (3월) 90.4
 - 독일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2.9
- 프랑스의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26.2월) 102.1 → (3월) 103.1
 - 프랑스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0.9
- 영국의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영국 산업생산지수: ('26.2월) 98.9 → (3월) 98.7
 - 영국 산업생산지수 증감(전년동월대비, %): ('26.2월) -1.5 → (3월) -0.6

■ (소비) '26.3월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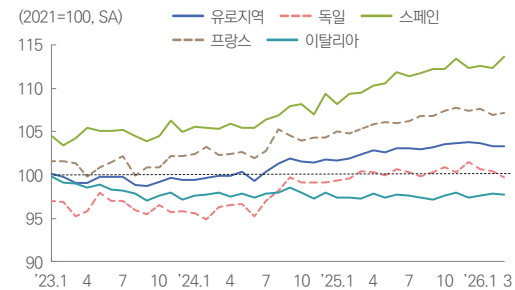
-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
 -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26.1월) 103.7 → (2월) 103.4 → (3월) 103.4
 - 전년동월대비 증감(%): ('26.1월) 2.0 → (2월) 1.5 → (3월) 1.0
- 스페인과 프랑스의 소비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의 회복세는 더딘 모습
 - 프랑스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2.6 → (2월) 2.2 → (3월) 1.9
 - 스페인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4.4 → (2월) 3.0 → (3월) 4.2
 - 독일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1.3 → (2월) 0.9 → (3월) -0.8
 - 이탈리아 전년동월대비 소매판매지수 증감(%): ('26.1월) 0.3 → (2월) 0.4 → (3월) 0.5

| 그림 11 | 산업생산지수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그림 12 | 소매판매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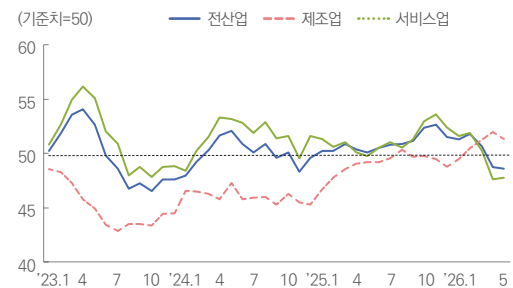


주: 자동차부품 제외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구매관리자지수) '26.5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2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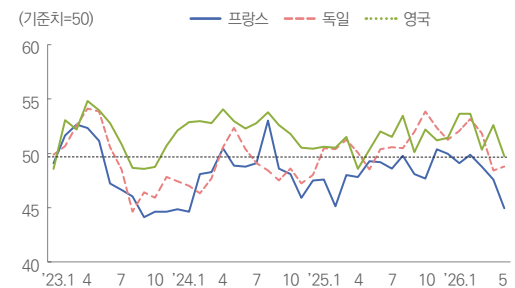
- '26.5월 유로지역 종합PMI(전산업)는 전월보다 0.1p 하락
 - 유로지역 종합PMI : ('26.3월) 50.7 → (4월) 48.7 → (5월) 48.6
-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여행 관련 활동 위축 등으로 제조업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 서비스업은 2개월 연속 50p 이하
 - 제조업 PMI: ('26.3월) 51.3 → (4월) 52.0 → (5월) 51.4
 - 서비스업 PMI : ('26.3월) 50.0 → (4월) 47.6 → (5월) 47.7
- 프랑스와 영국의 전산업 PMI는 전월대비 감소, 독일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프랑스 전산업 PMI: ('26.3월) 48.8 → (4월) 47.6 → (5월) 44.9
 - 영국 전산업 PMI: ('26.3월) 50.3 → (4월) 52.6 → (5월) 49.7
 - 독일 전산업 PMI: ('26.3월) 51.9 → (4월) 48.4 → (5월) 48.8

| 그림 13 | 유로지역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

| 그림 14 | 국가별 전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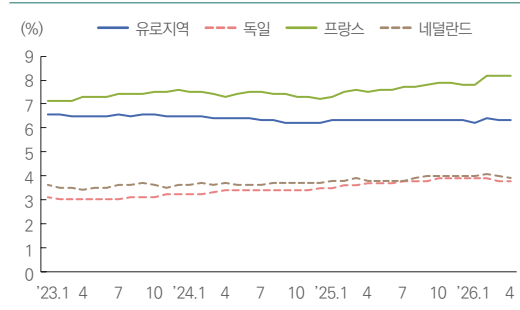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50 미만은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
자료: S&P Global

■ (노동시장) '26.4월 유로지역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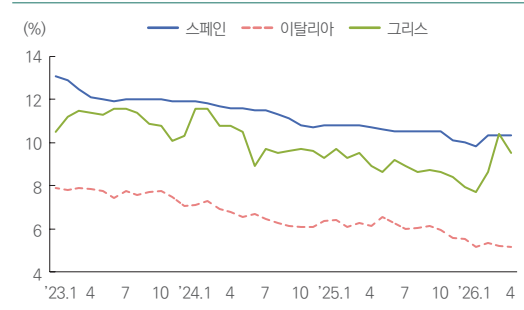
- 독일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 스페인은 정체, 그리스는 상승, 이탈리아는 하락
- 유로지역 실업률(%): ('26.2월) 6.4 → (3월) 6.3 → (4월) 6.3
 - 독일 ('26.2월) 3.9 → (4월) 3.8, 프랑스 ('26.2월) 8.2 → (4월) 8.2
 - 스페인 ('26.2월) 10.3 → (4월) 10.3, 그리스 ('26.2월) 8.6 → (4월) 9.5, 이탈리아 ('26.2월) 5.4 → (4월) 5.1

| 그림 15 | 유로지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실업률



주: 계절조정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그림 16 |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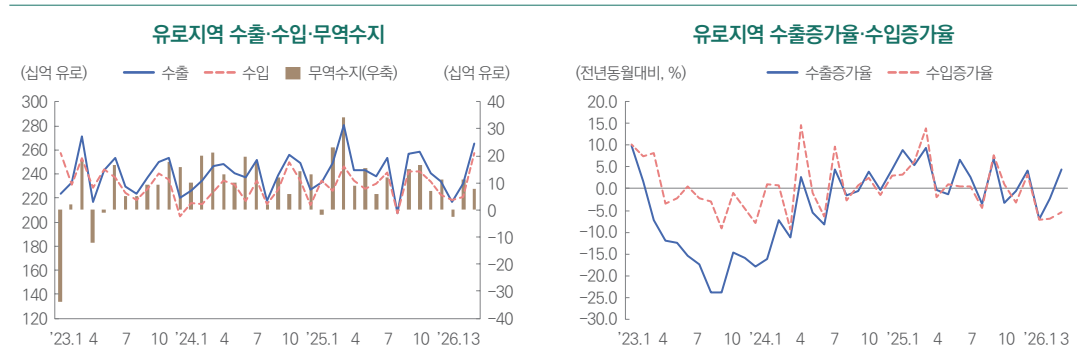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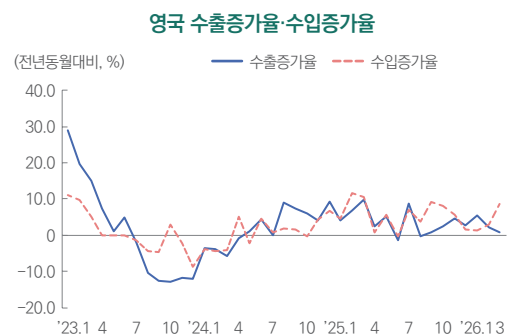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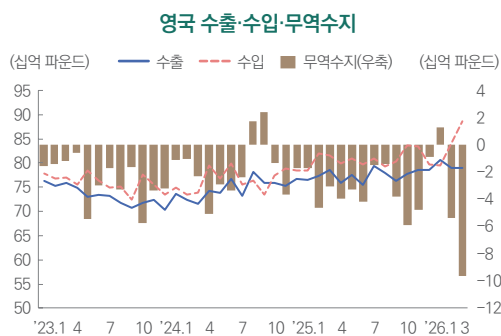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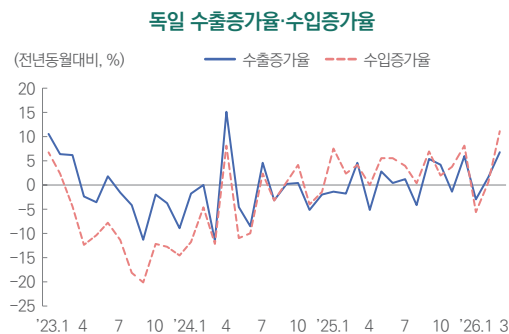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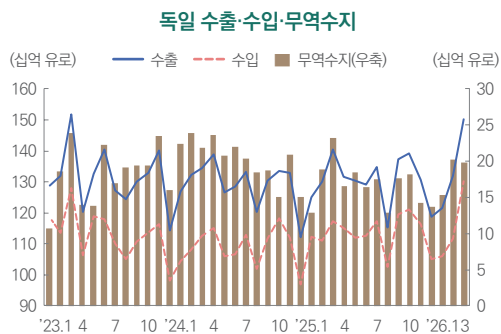
주: 계절조정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교역) 유로지역 '26.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유로지역 역외수출(전년동월대비, %): ('26.1월) -7.2 → (2월) -6.9 → (3월) -5.5
- 유로지역 역외수입(전년동월대비, %): ('26.1월) -6.9 → (2월) -2.3 → (3월) 4.4
- 유로지역 무역수지(억 유로): ('26.1월) -2.4 → (2월) 11.1 → (3월) 7.8
 - 독일 수출은 6.9%, 수입은 11.2% 증가, 무역수지는 697억 유로 흑자 기록
 - 영국 수출은 0.7%, 수입은 8.8% 증가, 무역수지는 97억 파운드 적자 기록

| 그림 17 | 유럽 주요국의 대(對) 세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주: 유로지역 수출입은 역내교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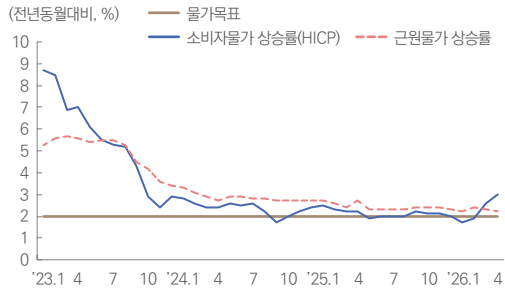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영국 통계청(ONS)

■ (물가) 유로지역 '26.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¹³⁾」은 3.0%로 전월대비 0.4%p 증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1.9 → (3월) 2.6 → (4월) 3.0
- 중동정세 불안정으로 에너지 부문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여 물가상승을 견인
 - 산업재(에너지 제외) 물가 상승률(%): ('26.1월) 0.2 → (2월) 0.5 → (3월) 0.4
 - 식음료 물가 상승률(%): ('26.1월) 2.7 → (2월) 2.6 → (3월) 2.4
 - 에너지 물가 상승률(%): ('26.1월) -3.9 → (2월) -3.1 → (3월) 5.2
 -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부문별 기여도(%p): (식음료) 0.5 (산업재) 0.1 (에너지) 0.5 (서비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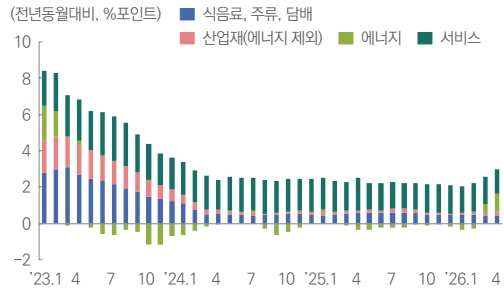
13)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물가통합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 HICP)를 사용하며, 유로지역 내 개별 국가들의 소비자물가를 종합하여 반영함.

| 그림 18 | 물가상승률 및 목표



주: 1. ECB의 물가상승률 목표
2. 소비자물가통합지수(HICP)
3. 근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한 HICP)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그림 19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자료: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 (금융) 유로지역 '26.5월 말 「주가지수」는 전월말 대비 상승, 「금리」는 전월수준을 유지, 「환율」은 하락

- (주가) '26.5월말 유로지역 주가지수(Eurostoxx)는 649.3p로 전월대비 19.2p 상승
- 주가지수(p): ('26.3월) 595.5 → (4월) 630.1 → (5월) 649.3
- (금리) '26.5월말 독일 국채(10년물) 금리는 3.0%로 전월수준을 유지
- 독일 국채 10년물(%): ('26.3월) 2.9 → (4월) 3.0 → (5월) 3.0
- (환율) '26.5월말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1.164유로로 전월대비 0.5% 하락
- 환율(유로/달러): ('26.3월) 1.150 → (4월) 1.170 → (5월) 1.164

| 그림 20 | 주가지수(Eurostoxx)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 그림 21 | 환율



주: 월말 기준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03 일본

I

세계경제 동향

II

주요 선진경제 동향

III

주요 신흥경제 동향

IV

대외경제 이슈

2026년 1분기 일본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 증가

- GDP 증가율(%): ('25.3분기) -0.6 → (4분기) 0.2 → ('26.1분기) 0.5
- 민간수요(0.0%)는 주택건설(0.9%) 증가, 설비투자(-0.7%) 감소로 전기수준 유지
- 공적수요(0.5%)는 공적고정자본형성(1.5%)의 개선으로 전기대비 증가
- 수출(1.8%)은 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 수입(0.4%)은 전기대비 소폭 증가

표 4 | 국내총생산(지출항목별)

(단위: 전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0.1	1.1	0.5	0.3	-0.6	0.2	0.5
국내수요	0.2	1.4	1.1	0.2	-0.3	0.1	0.1
민간수요	0.0	1.6	1.6	0.0	-0.3	0.1	0.0
민간소비지출	-0.1	1.3	0.6	0.2	0.5	0.1	0.1
주택건설	-2.3	-2.5	-0.5	0.0	-8.0	5.0	0.9
설비투자	1.2	2.1	1.2	1.0	-0.1	1.2	-0.7
공적수요	0.5	0.7	-0.2	0.5	-0.1	0.3	0.5
정부소비지출	0.9	0.9	-0.3	0.6	0.1	0.4	0.3
공적고정자본형성	-0.9	-0.4	-0.8	0.4	-1.0	-0.1	1.5
수출	1.0	2.5	-0.6	1.6	-1.6	0.2	1.8
수입	1.3	3.8	2.2	1.1	-0.2	0.0	0.4

자료: 일본 내각부(C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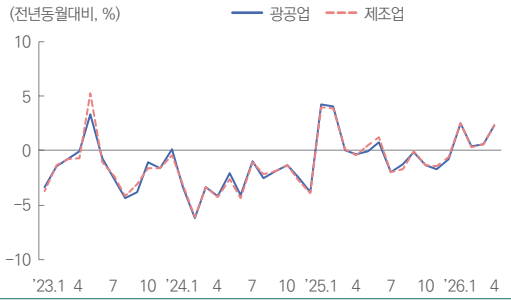
■ (생산) '26.4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광공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4 → (3월) 0.6 → (4월) 2.3
 - 광업은 8.1% 감소, 제조업은 2.3% 증가

■ (소비) '26.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 전월대비 7.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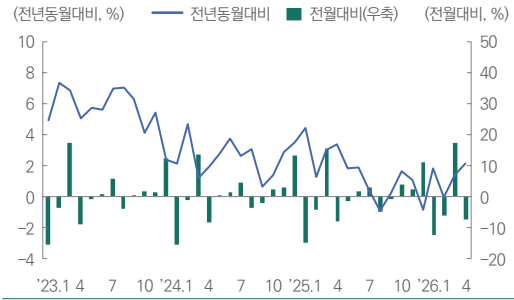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0.1 → (3월) 1.4 → (4월) 2.1
- 소매판매(전월대비, %):('26.2월) -6.1 → (3월) 17.2 → (4월) -7.3

| 그림 22 | 광공업생산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 그림 23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ME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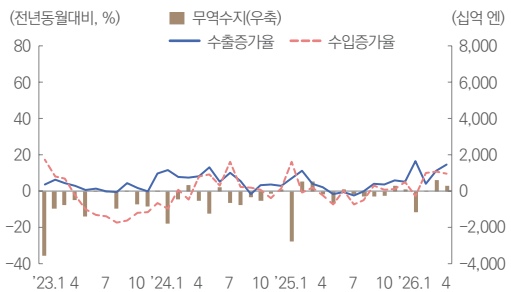
■ (교역) '26.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 「수입」은 9.8% 증가, 「무역수지」는 2,993억 엔 흑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4.0 → (3월) 11.5 → (4월) 14.8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2월) 10.3 → (3월) 11.0 → (4월) 9.8
- 무역수지(억 엔): ('26.2월) 366 → (3월) 6,312 → (4월) 2,993

■ (노동시장) '26.4월 「실업률」은 2.5%, 「고용률」은 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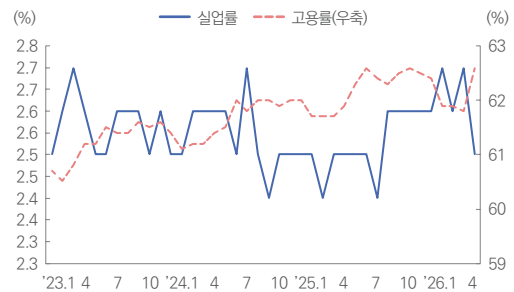
- 실업률(%): ('26.2월) 2.6 → (3월) 2.7 → (4월) 2.5
- 고용률(%): ('26.2월) 61.9 → (3월) 61.8 → (4월) 62.6

| 그림 2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일본 재무성(MOF)

| 그림 25 | 실업률¹⁾ 및 고용률²⁾



주: 1) 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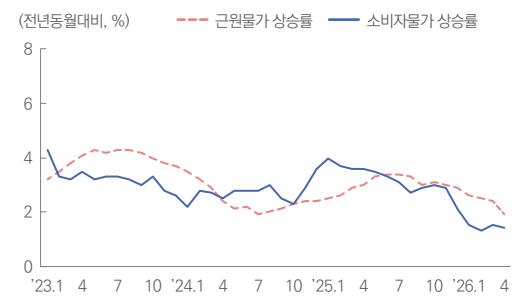
2)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자료: 일본 통계국(SBJ)

■ (물가) '26.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4%로 전월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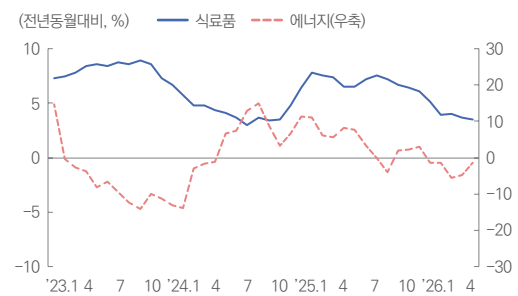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의 상승률('26.3월 3.6% → 4월 3.5%)이 둔화되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하락('26.3월 -4.8% → 4월 -1.5%)하여 물가상승률이 하락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5 → (4월) 1.4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2.5 → (3월) 2.4 → (4월) 1.9

| 그림 26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¹⁾ 상승률



주: 1) 신선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그림 27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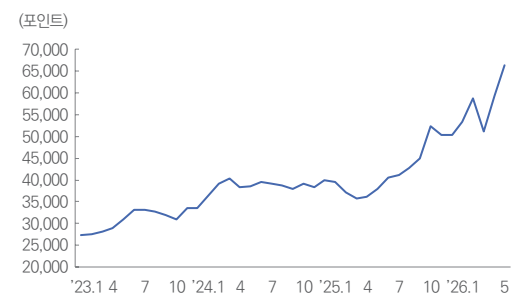


자료: 일본 통계국(SBJ)

■ (금융) '26.5월 「주가지수」는 전월말 대비 11.9% 상승, 「금리」는 상승, 「환율」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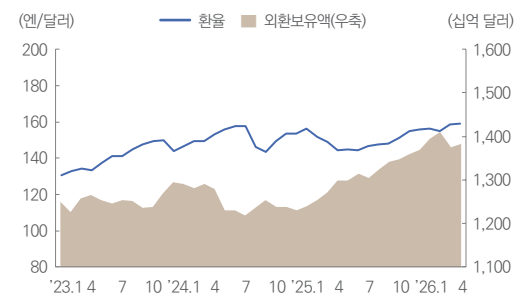
- (주가) 5월말 니케이지수는 66,329.5p로 전월말 대비 11.9% 상승
 - 주가지수(p): ('26.3월) 51,063.7 → (4월) 59,284.9 → (5월) 66,329.5
- (금리) 5월말 국채(10년물) 금리는 2.7%로 전월대비 0.2%p 상승
 - 국채 10년물(%): ('26.3월) 2.1 → (4월) 2.5 → (5월) 2.7
- (환율) 5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59.3엔/달러로 전월대비 0.9엔 하락
 - 환율(엔/달러): ('26.3월) 159.6 → (4월) 160.1 → (5월) 159.3

| 그림 28 | 주가지수(Nikkei)



주: 월말 기준
자료: 도쿄증권거래소(TSE)

| 그림 29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말 기준
자료: 일본은행(BOJ), IMF

III

요약

주요 신흥경제 동향

■ (중국) 수출 회복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시현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3분기) 4.8 → (4분기) 4.5 → ('26.1분기) 5.0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1~2월) 6.3 → (3월) 5.7 → (4월) 4.1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39.6 → (3월) 2.5 → (4월) 14.1
- 실업률(%): ('26.2월) 5.3 → (3월) 5.4 → (4월) 5.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0 → (4월) 1.2

■ (브라질)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 완화로 경제성장세 개선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3분기) 1.8 → (4분기) 1.8 → ('26.1분기) 2.3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4.4 → (4월) 2.7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3월) 10.6 → (4월) 14.5 → (5월) 6.6
- 실업률(%): ('26.2월) 5.8 → (3월) 6.1 → (4월) 5.8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8 → (3월) 4.1 → (4월) 4.4

■ (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대러 제재 지속에 따른 생산 정체 및 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약화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3분기) 0.8 → (4분기) 1.0 → ('26.1분기) -0.2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4.3 → (3월) 6.6 → (4월) 3.7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7.6 (3월) 17.0 → (4월) 15.6
- 실업률(%): ('26.2월) 2.1 → (3월) 2.2 → (4월) 2.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6.0 → (3월) 5.9 → (4월) 5.8

■ (인도)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3분기) 8.3 → (4분기) 8.0 → ('26.1분기) 7.8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5.2 → (3월) 3.2 → (4월) 4.9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0.8 → (3월) -7.4 → (4월) 13.8
- 실업률(%): ('26.2월) 4.8 → (3월) 5.1 → (4월) 5.2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2 → (3월) 3.4 → (4월) 3.5

■ (베트남)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 ('25.3분기) 8.3 → (4분기) 8.5 → ('26.1분기) 7.8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3월) 6.9 → (4월) 9.3 → (5월) 8.8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3월) 20.3 → (4월) 22.2 → (5월) 18.0
- 실업률(%): ('25.3분기) 2.21 → (4분기) 2.22 → ('26.1분기) 2.21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3월) 4.7 → (4월) 5.5 → (5월) 5.6

[01 중국

중국경제는 수출 회복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시현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5.0% 성장(전기대비 1.3%)

- (산업별) 산업별로는 2차산업(3.4%→4.9%)은 성장세가 확대되고 3차산업(5.2%→5.2%)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1차산업(4.2%→3.8%)은 소폭 하락
- (지출부문별)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최종소비지출이 성장세를 뒷받침한 가운데 총자본형성의 기여도가 전분기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순수출의 기여도는 다소 낮아짐

표 1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²⁾ 국내총생산

(단위: %, %p)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5.0	5.0	5.4	5.2	4.8	4.5	5.0
1차산업	3.5	3.9	3.5	3.8	4.0	4.2	3.8
2차산업	5.8	4.5	5.9	4.8	4.2	3.4	4.9
3차산업	5.0	5.4	5.3	5.7	5.4	5.2	5.2
최종소비지출	2.3	2.6	2.7	2.7	2.6	2.4	2.2
총자본형성	1.1	0.8	0.3	1.3	0.8	0.8	1.8
순수출	1.5	1.6	2.4	1.3	1.4	1.5	0.7

주: 1) 전년동기대비

2) GDP 기여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생산) '26.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광업은 3.8%, 제조업은 컴퓨터·통신·전자기기(15.6%) 등을 중심으로 4.0%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1~2월) 6.3 → (3월) 5.7 → (4월) 4.1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1~2월) 6.6 → (3월) 6.0 → (4월)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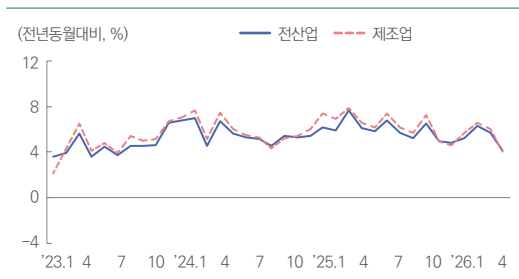
■ (경기) '26.5월 「구매관리자지수(PMI)¹⁴⁾」는 50.5로 전월대비 0.4p 상승

-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 ('26.3월) 50.5 → (4월) 50.1 → (5월) 50.5

14)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50을 상회하면 경기확장, 50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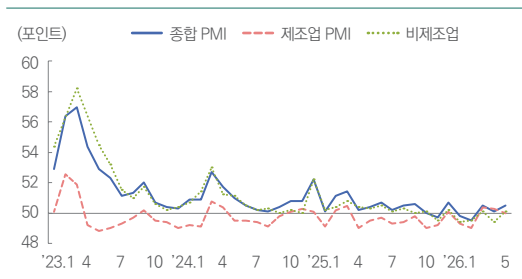
- (제조업) 5월 제조업 PMI는 50.0으로 전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기준치(50)를 유지
 - (규모별) 대기업은 51.1로 전월대비 0.9p 상승하였으나 중기업(48.6)과 소기업(48.5)은 각각 전월대비 1.9p, 1.6p 하락
 - (업종별) 첨단기술 제조업은 52.9로 전월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장비제조업은 52.1로 0.3p 상승
 - 제조업 PMI(지수): ('26.3월) 50.4 → (4월) 50.3 → (5월) 50.0
- (비제조업) 5월 비제조업 PMI는 50.1로 전월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기준치(50) 상회
 - 비제조업 PMI(지수): ('26.3월) 50.1 → (4월) 49.4 → (5월) 50.1
 - 서비스업(4월 49.6 → 5월 50.3)은 상승하며 확장국면으로 전환된 반면, 건설업(48.0 → 48.8)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50)를 하회하며 위축 국면 지속

| 그림 1 | 산업생산 증감률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Bloomberg

| 그림 2 | 구매관리자지수(PMI)



주: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위축을 의미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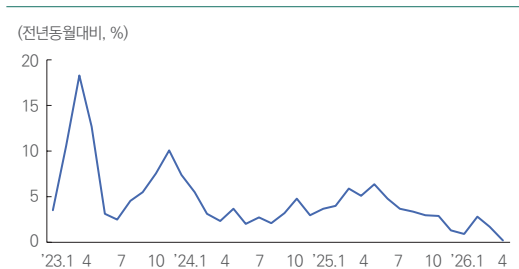
■ (소비) '26.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상품판매는 감소로 전환(3월 1.5% → 4월 -0.1%)되고, 외식업(2.9% → 2.2%)은 증가폭이 축소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1~2월) 2.8 → (3월) 1.7 → (4월) 0.2

■ (투자) '26.4월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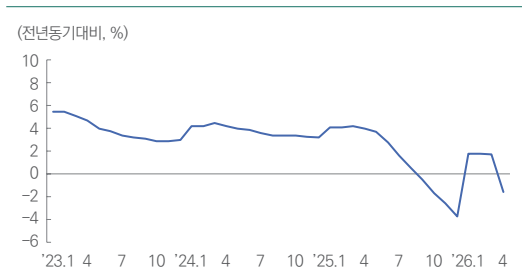
- 제조업(3월 4.1% → 4월 1.2%)과 SOC투자(8.9% → 4.3%)의 투자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은 심화(-11.2% → -13.7%)
- 고정자산투자(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 ('26.2월) 1.8 → (3월) 1.7 → (4월) -1.6

| 그림 3 | 소매판매 증감률



주: 춘절로 인해 1~2월은 누적치를 발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4 |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주: 누계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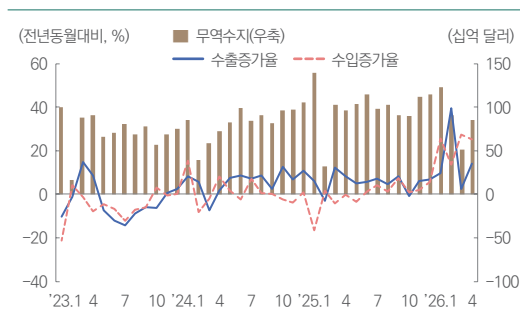
■ (교역) '26.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1% 증가, 「수입」은 25.3% 증가, 「무역수지」는 848억 달러 흑자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39.6 → (3월) 2.5 → (4월) 14.1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반도체) 54.6 (유무선통신기기) 44.5 (컴퓨터) 26.3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홍콩) 44.2 (미국) 10.1 (베트남) 24.3 (한국) 24.3 (일본) 3.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2월) 13.8 → (3월) 27.8 → (4월) 25.3
- 무역수지(억 달러): ('26.2월) 910 → (3월) 511 → (4월) 848

■ (노동시장) '26.4월 「실업률」은 5.2%로 전월대비 0.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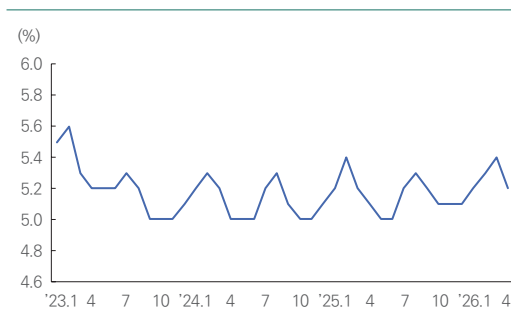
- 실업률(%): ('26.2월) 5.3 → (3월) 5.4 → (4월) 5.2
- '25.1~11월 평균 신규취업자 수는 110.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명(1.0%) 증가

| 그림 5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중국 해관총서(GAC)

| 그림 6 | 실업률



주: 전국 조사실업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물가) '26.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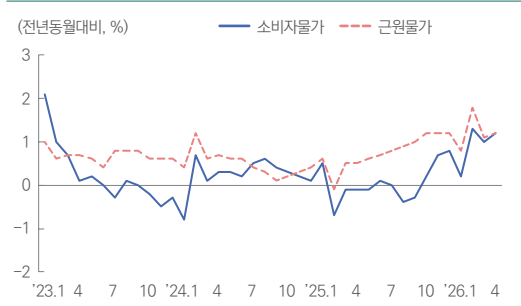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26.3월 0.4% → 4월 -0.8%)은 하락하였으나, 교통·통신 가격(0.9% → 4.6%)은 상승폭 확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1.3 → (3월) 1.0 → (4월) 1.2
- 근원물가¹⁵⁾(전년동월대비, %): ('26.2월) 1.8 → (3월) 1.1 → (4월) 1.2

■ (주택가격) '26.4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7% 하락

-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최근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
 - 70개 도시 중 상하이(3.7%), 항저우(2.3%) 등 5개 도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하락세 지속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5 → (3월) -3.6 → (4월)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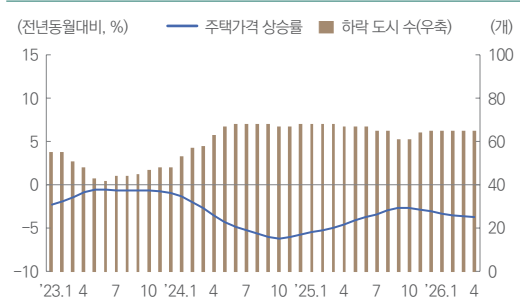
15) 식품, 에너지 제외 지수

| 그림 7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그림 8 |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¹⁾ 및 가격 하락 도시 수²⁾



주: 1)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의 단순 평균

2)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도시의 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NBS)

■ (금용) '25.5월 「주가지수」, 「금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

- (주가) 5월 상해종합지수는 4,069포인트로 전월대비 1.1%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6.3월) 3,892 → (4월) 4,112 → (5월) 4,069
- (금리) 5월 국채(10년물) 금리는 1.71%로 전월대비 하락
 - (기준금리) 5/20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물 3.0%, 5년물 3.5%로 12개월 연속 동결
 - 국채 10년물(%): ('26.3월) 1.81 → (4월) 1.75 → (5월) 1.71
- (환율) 5월 위안화 환율은 6.82 위안/달러로 전월대비 0.7% 하락
 - 환율(위안/달러): ('26.3월) 6.92 → (4월) 6.86 → (5월) 6.82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6.2월) 3,428 → (3월) 3,342 → (4월) 3,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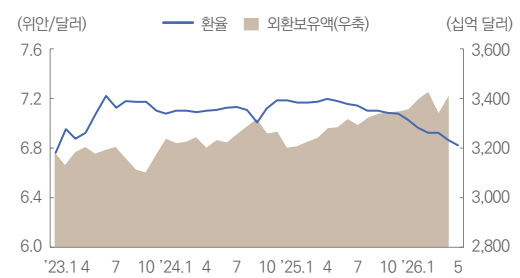
| 그림 9 | 주가지수(상해종합)



주: 월말자료

자료: 상하이 증권거래소(SSE)

| 그림 1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주: 월별자료

자료: 중국 인민은행(PBOC)

[BOX 2] 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¹⁶⁾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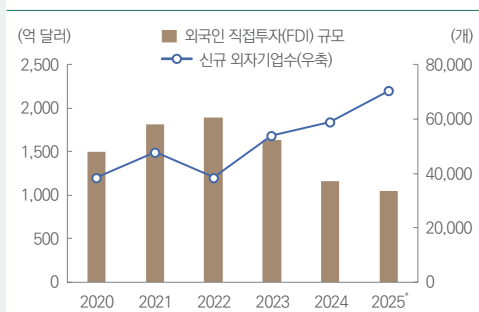
■ 2025년 중국의 신규 외자기업 수는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는 감소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7,476.9억 위안(약 1,047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반면, 신규 외자기업 수는 7만 392개로 19.1% 증가
 - 글로벌 경기 회복세 약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외국기업의 투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은 지속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5,451.2억 위안(약 763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6.8%p 증가
 - 2026년 1분기에는 연구개발 및 설계분야 등을 포함한 고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동기대비 127.8% 증가하는 등 첨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가 확대

■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서비스업 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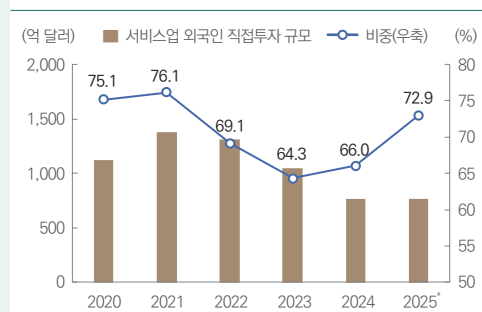
-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업 분야의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
- 한편 반도체, 첨단장비, 전기차, 신에너지, 디지털 제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도 지속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및 신규 외자기업 수



주: 1. 2025년 자료는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실제 외자사용액(Actual Utilized)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MOFCOM)

미국의 대한중 수입 비중 추이



주: 1. 2025년 자료는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실제 외자사용액(Actual Utilized) 기준
 자료: 중국 상무부(MOFCOM)

16) 실제 외자 사용액(Actual Utilized)을 기준으로 작성

1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발표(2025),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2025년판)』

02 브라질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 완화로 경제성장세 개선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3% 성장(전기대비 1.1%)
 - (경제활동별)농림어업(11.7%), 광업(8.6%), 서비스업(1.8%), 건설업(0.5%)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제조업(-0.2%)은 감소
 - (지출항목별)민간소비(1.7%), 정부지출(2.8%), 수출(7.4%)및 수입(1.2%)은 증가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1.4%)은 전년동기대비 감소

표 2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3.4	2.3	3.1	2.4	1.8	1.8	2.3
농림어업	-3.7	11.7	12.9	11.5	10.1	12.1	11.7
광업	0.5	8.6	1.2	8.8	11.9	12.0	8.6
제조업	3.9	-0.2	2.5	-0.2	-0.6	-2.0	-0.2
건설업	4.4	0.5	3.0	0.2	2.0	-2.9	0.5
서비스업	3.8	1.8	2.1	1.9	1.3	2.0	1.8
민간소비	5.1	1.3	2.2	1.8	0.4	1.0	1.7
정부지출	2.0	2.1	2.0	0.9	1.8	3.6	2.8
총고정자본형성	6.9	2.9	9.0	4.1	2.3	-3.1	-1.4
수출	2.8	6.2	1.2	2.1	7.2	14.2	7.4
수입	15.6	4.5	13.3	3.9	2.2	-0.3	1.2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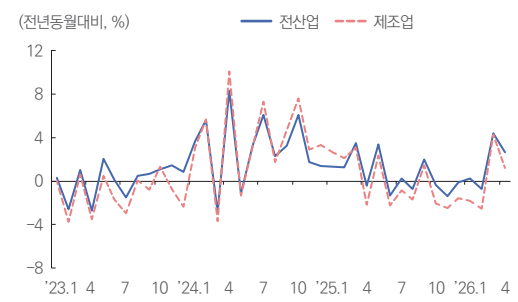
- (생산) '26.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광업은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은 자본재(-4.3%) 생산 감소에도 중간재(3.8%)와 소비재(2.1%)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0.7 → (3월) 4.4 → (4월) 2.7

■ (소비) '26.3월 「소매판매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전월대비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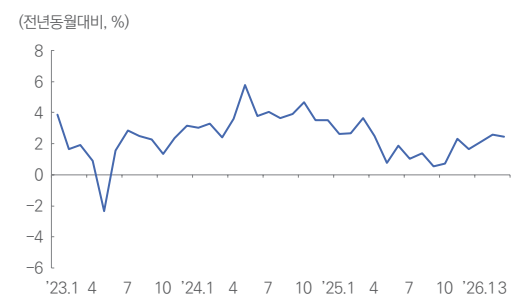
- (상품군별) 연료·유탄유(6.0%), 의약품·화장품(4.5%), 가구·가전(3.3%), 슈퍼마켓(0.2%), 음식료(0.1%), 의복·신발(-1.5%), 서적(-5.4%)
- 소매판매지수(전년동월대비, %): ('26.1월) 2.1 → (2월) 2.6 → (3월) 2.5

| 그림 1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2 |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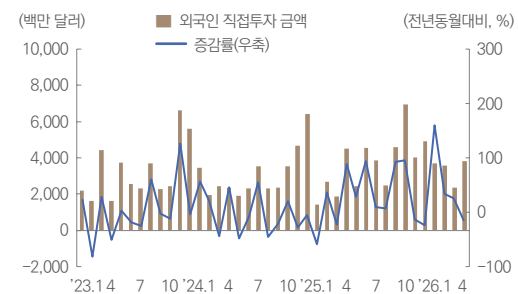
■ (투자) '26.4월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5.3%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전년동월대비, %): ('26.2월) 34.0 → (3월) 25.7 → (4월) -15.3

■ (교역) '26.5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수입」은 5.3% 증가, 「무역수지」는 78.2억 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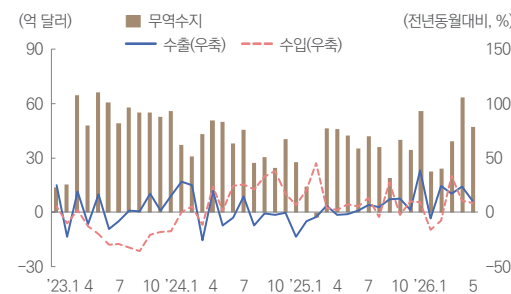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3월) 10.6 → ('26.4월) 14.5 → (5월) 6.6
 - 주요 품목별(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원유) 69.6 (대두) 4.3 (철광석) -0.2
 - 주요 교역국(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중국) 17.6 (미국) -9.4 (아르헨티나) -5.9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3월) 20.2 → (4월) 6.3 → (5월) 5.3
- 무역수지(억 달러): ('26.3월) 65.3 → (4월) 105.8 → (5월) 78.2

| 그림 13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자료: CEIC

| 그림 1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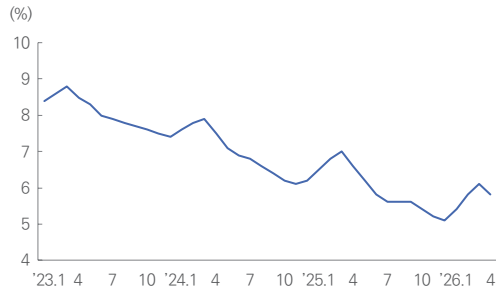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경제부(MOE)

■ (노동시장) '26.4월 「실업률」은 5.8%

- 실업률(%): ('26.2월) 5.8 → (3월) 6.1 → (4월) 5.8
- '26.1월~4월(누적) 신규 일자리 수는 68만 개로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

| 그림 15 | 실업률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6 | 신규 일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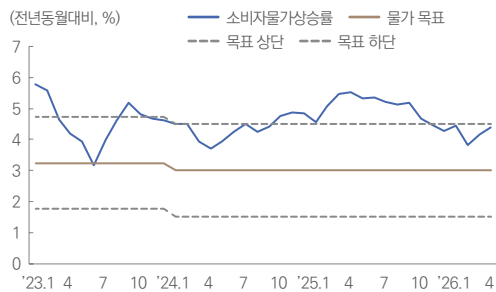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Labor

■ (물가) '26.4월 「소비자물가(IPCA¹⁸)」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4%로 전월(4.1%) 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2월) 3.8 → (3월) 4.1 → (4월) 4.4
 - 부문별 기여도(%p): (주거) 0.9 (교통) 0.9 (의료) 0.8 (식음료) 0.6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IPCA)은 브라질 중앙은행(BCB)의 목표치인 3%를 상회하고 있으나 허용범위 내에 있음(허용범위 ±1.5%포인트)

| 그림 17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물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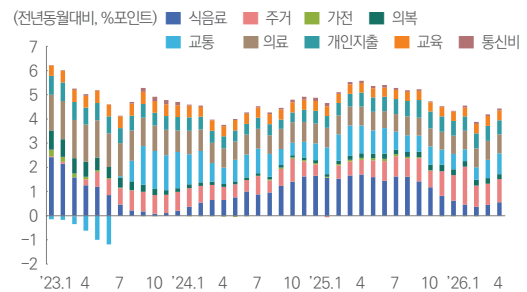


주: 1. 전국 소비자물가지수(IPCA)

2. 점선은 목표 상단 및 하단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

| 그림 18 |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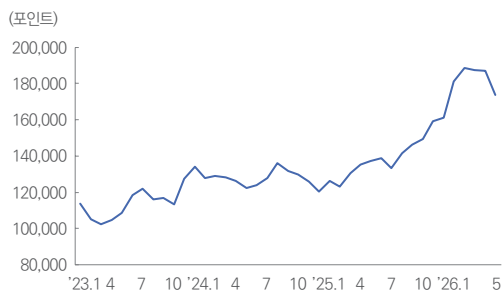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

18) 전국 소비자물가지수(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 Amplo, IPCA)

■ (금융) '26.5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금리」와 「환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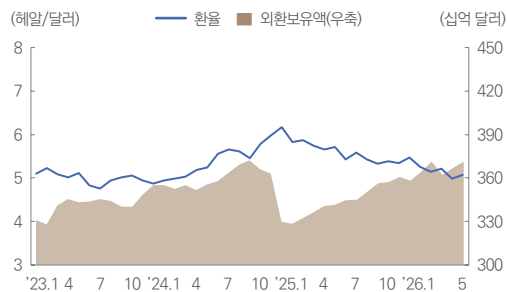
- (주가) '26.5월 보베스파(Bovespa)지수는 173,787포인트로 전월대비 7.2%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6.3월) 187,462 → (4월) 187,318 → (5월) 173,787
- (금리) '26.5월 브라질 국채(10년물) 금리는 14.1%로 전월대비 0.15%p 상승
 - (기준금리)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4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기준금리(Selic)를 15.0%까지 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경제성장 둔화로 '26년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26년 3월 -25bp, 4월 -25bp) 기준금리를 14.5%까지 인하하였음
 - 국채 10년물(%): ('26.3월) 14.01 → (4월) 13.96 → (5월) 14.11
- (환율) '26.5월 달러 대비 헤알화의 환율은 전월대비 1.6% 상승
 - 환율(헤알/달러): ('26.3월) 5.21 → (4월) 4.98 → (5월) 5.06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6.3월) 362.0 → (4월) 366.9 → (5월) 371.1

| 그림 19 | 주가지수(Bovespa)



자료: 브라질 증권거래소(BOVESPA)

| 그림 20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BCB), IMF

03 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대러 제재 지속에 따른 산업생산의 정체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세가 약화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
 - (경제활동별) 광업(0.4%)과 서비스업(0.3%)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제조업(-1.5%)과 건설업(-9.7%)은 감소하였고 농림어업(0.0%)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
 - '26.1~4월 고정자산투자는 6.63조 루블로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하여 투자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러시아 연방통계청)¹⁹⁾

표 3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4.9	1.0	1.3	1.0	0.8	1.0	-0.2
농림어업	-3.5	2.3	1.5	1.3	1.7	4.5	0.0
광업	-0.5	-1.7	-4.4	-1.3	-0.7	-0.5	0.4
제조업	8.7	3.9	4.3	4.0	3.1	4.3	-1.5
건설업	6.1	1.2	2.8	0.9	1.2	0.8	-9.7
서비스업	6.6	0.9	2.2	1.0	0.5	0.2	0.3
민간소비	6.8	3.6	4.2	3.2	3.1	3.8	-
정부지출	2.2	1.1	1.9	0.9	1.0	0.8	-
총고정자본형성	8.6	-0.4	7.0	0.6	-0.5	-4.2	-
수출	2.1	-2.7	-5.1	-6.4	-0.7	-1.2	-
수입	-0.5	1.1	-1.0	4.7	-3.5	3.7	-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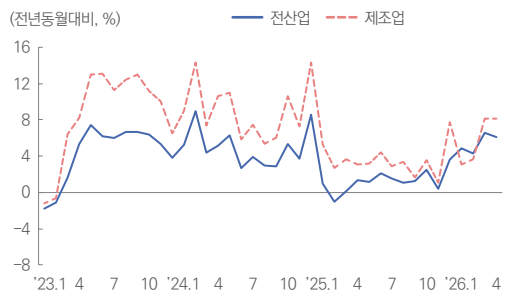
- (생산) '26.4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4.3 → (3월) 6.6 → (4월) 6.1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19) Rosstat, Socio-Economic Situation of Russia, January–April 2026

■ (소비) '26.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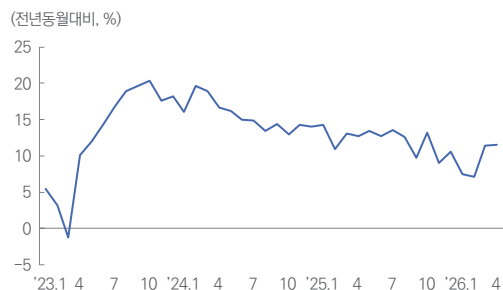
- 소매판매액(전년동월대비, %): ('26.2월) 7.1 → (3월) 11.4 → (4월) 11.5

| 그림 21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2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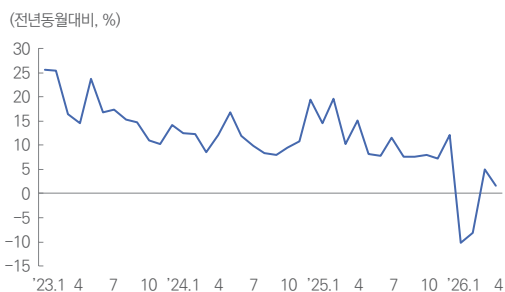
■ (건설) '26.4월 「건설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 건설 생산량(전년동월대비, %): ('26.2월) -8.3 → (3월) 4.9 → (4월) 1.5

■ (교역) '26.4월 「수출」은 388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5.6%), 「수입」은 274억 달러(전년동월대비 7.5%)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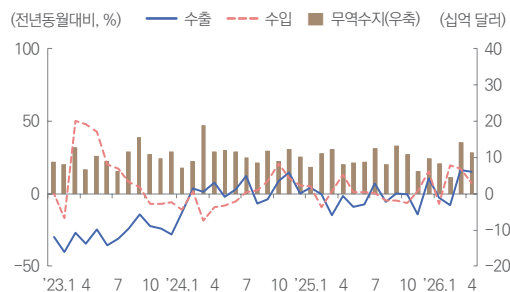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7.6 → (3월) 17.0 → (4월) 15.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2월) 19.9 → (3월) 17.4 → (4월) 7.5
- 무역수지(억 달러): ('26.2월) 45.9 → (3월) 142.8 → (4월) 114.3

| 그림 23 | 건설생산 증감률



자료: CEIC

| 그림 24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러시아 중앙은행(C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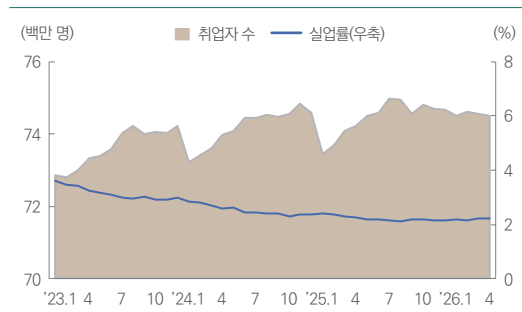
■ (노동시장) '26.4월 「실업률」은 2.2%로 전월 수준 유지

- 실업률(%): ('26.2월) 2.1 → (3월) 2.2 → (4월) 2.2
- '26.4월 취업자 수는 7,45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명 증가

■ (물가) '26.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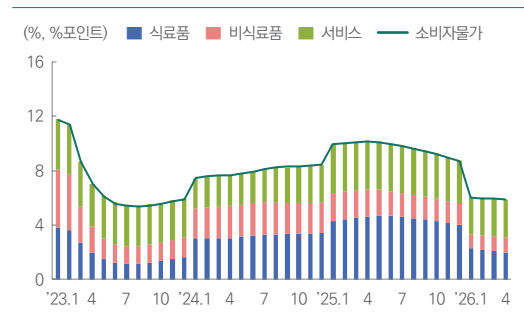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6.0 → (3월) 5.9 → (4월) 5.8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식료품) 5.1 (비식료품) 3.5 (서비스) 9.8

| 그림 25 | 취업자 수 및 실업률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그림 26 |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자료: 러시아 통계청(FSSS)

■ (경기) '26.4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준선(50) 하회²⁰⁾

- 「제조업 PMI」는 전월 48.3에서 48.1로 하락하였으며, 기준선(50) 하회
- 「서비스업 PMI」는 전월 49.5에서 49.7로 상승하였으나, 기준선(50)에는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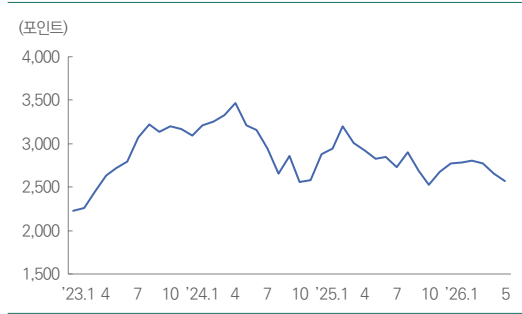
■ (금융) '26.5월 「주가지수」와 「금리」는 전월 대비 상승, 「환율」은 하락

- (주가) '26.5월 러시아 주가지수(MOEX)는 2,566포인트로 전월대비 1.0% 상승
 - 주가지수(포인트): ('26.3월) 2,766 → (4월) 2,658 → (5월) 2,566
- (금리) '26.5월 러시아 국채(10년물) 금리는 14.9%로 전월대비 0.4%p 상승
 - (기준금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21.0%까지 인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경기 둔화 우려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26.5월 기준금리 14.5%)
 - 국채 10년물(%): ('26.3월) 14.5 → (4월) 14.5 → (5월) 14.9

20)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 기준선(50)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산, 신규주문, 고용 등이 증가한 기업 수와 감소한 기업 수가 같으면 구매관리자지수 값이 50으로 산출됨. 증가한 기업 수가 감소한 기업 수보다 많으면(경기 확장 국면) PMI는 50을 초과한 값으로, 감소한 기업 수가 증가한 기업 수보다 많으면(경기 위축 국면) PMI는 50 미만의 값으로 기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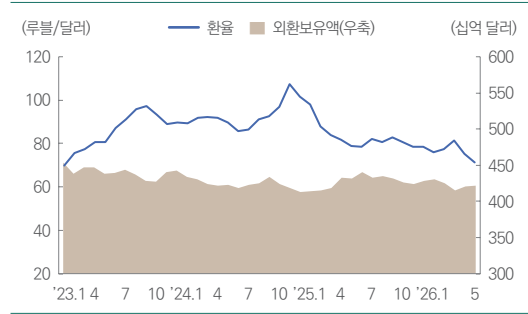
- (환율) '26.5월 미 달러 대비 루블화의 환율은 71.0루블로 전월대비 5.2% 하락
 - 환율(루블/달러): ('26.3월) 81.3 → (4월) 74.9 → (5월) 71.0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6.3월) 415.0 → (4월) 421.2 → (5월) 421.5

| 그림 27 | 주가지수(MOEX)



자료: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

| 그림 28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CBR)

04 인도

인도경제는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호조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8% 성장

- (경제활동별) 제조업(7.3%)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건설업(8.4%)과 서비스업(9.9%)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장을 견인
- (지출항목별) 정부지출(4.9%)과 투자(10.8%)의 증가세는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7.1%)와 수출(3.7%)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

표 4 | 경제활동별¹⁾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²⁾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25년	2025/26년	2025년				2026년
	연간 ³⁾	연간 ³⁾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7.1	7.7	7.0	6.8	8.3	8.0	7.8
농림어업	4.2	3.0	3.8	4.4	2.7	1.7	3.6
광업	11.7	5.2	12.9	4.5	6.1	4.7	5.4
제조업	9.3	10.7	11.8	10.4	12.7	12.8	7.3
건설업	7.3	7.4	8.0	5.3	8.9	6.7	8.4
서비스업	7.9	9.3	6.8	8.0	9.2	9.9	9.9
민간소비	5.8	7.7	5.6	8.7	7.2	8.2	7.1
정부지출	6.5	5.5	3.6	5.8	6.6	4.6	4.9
총고정자본형성	6.4	8.2	6.2	4.9	8.4	8.2	10.8
수출	6.6	6.3	5.4	6.6	9.7	5.8	3.7
수입	5.3	5.6	5.5	7.0	6.0	7.2	1.9

주: 1) 경제활동별 성장률은 국내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기준
 2) 2022/23년 기준가격
 3) 연간자료는 회계 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2024/25년은 2024년 4월~2025년 3월을 나타냄
 4) 분기별 자료는 달력 연도(calendar year) 기준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생산) '26.4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9% 증가

- 광업은 전년동월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은 전기장비(19.2%), 기타 운송장비(18.8%) 등을 중심으로 6.2% 증가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5.2 → (3월) 3.2 → (4월) 4.9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2월) 5.9 → (3월) 3.9 → (4월) 6.2

■ (소비) '26.4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²¹⁾은 44만대로 전년동월대비 25.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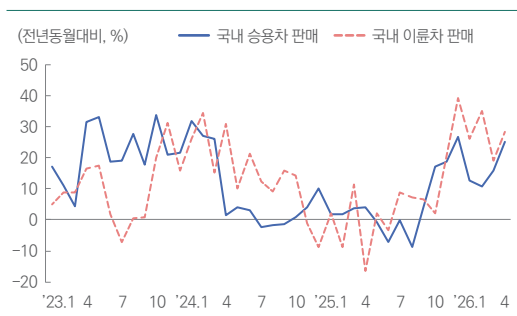
- 4월 국내 이륜차 판매량은 187만대로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
 - 국내 승용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10.6 → (3월) 16.0 → (4월) 25.4
 - 국내 이륜차 판매(전년동월대비, %): ('26.2월) 35.2 → (3월) 19.3 → (4월) 28.4
- (소비심리) '26.5월 「소비자신뢰지수」²²⁾는 90.7로 전기대비 5.0p 하락
 - 소비자신뢰지수(기준=100): ('26.1월) 98.1 → (3월) 95.7 → (5월) 90.7

| 그림 29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0 | 차량 판매 증감률



자료: 인도 자동차공업협회(SIAM)

■ (투자) '26.3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3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억 달러): ('26.1월) 23 → (2월) 54 → (3월) 33

■ (교역) '26.4월 「수출」은 436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3.8%), 「수입」은 712억 달러(10.0%)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84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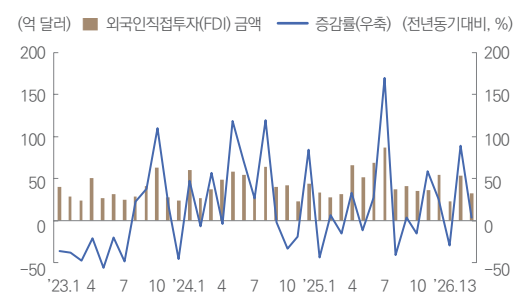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2월) -0.8 → (3월) -7.4 → (4월) 13.8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기계) 10.4 (전자제품) 0.3 (석유) 8.5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21.8 (UAE) 29.3 (중국) 55.7 (네덜란드) 20.5

21) 인도는 소매판매 지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의 민간 소비를 평가할 때 자동차 판매량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인도 자동차 판매시장에서는 승용차(passenger vehicles)보다 이륜차(two wheelers) 판매 비중이 높음.

22) 인도중앙은행의 격월마다 실시한 소비자신뢰조사(Consumer Confidence Survey) 결과 인도의 현재상황지수(Current Situation Index)로 100을 상회(하회)하면 경제상황이 개선(악화)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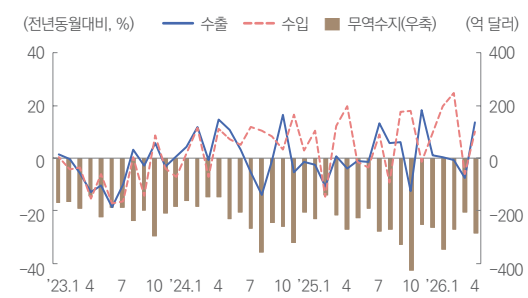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2월) 25.0 → (3월) -6.2 → (4월) 10.0
- 무역수지(억 달러): ('26.2월) -271 → (3월) -207 → (4월) -284

| 그림 31 | FDI 유입액 및 증감률



자료: 인도 산업무역진흥청(DPIIT)

| 그림 32 | 수출입 증감률 및 무역수지



자료: 인도 상공부(MCI)

■ '26.4월 「실업률」은 5.2%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5.3%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18.0%, 농촌지역 14.1%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 '26.4월 기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0%이며, 도시지역은 50.1%, 농촌지역은 57.5%를 기록
 - 실업률(%): ('26.2월) 4.8 → (3월) 5.1 → (4월) 5.2
 - 청년층 실업률(%): ('26.2월) 14.8 → (3월) 15.2 → (4월) 15.3
 - 경제활동참가율(%): ('26.2월) 55.9 → (3월) 55.4 → (4월) 55.0

■ '26.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로 전월대비 0.1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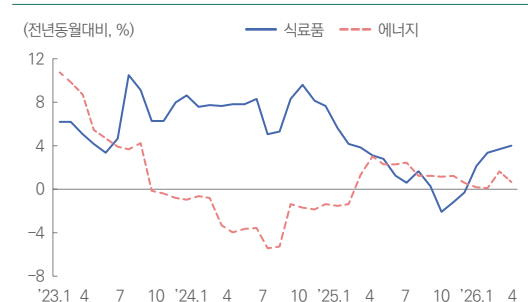
- (품목별) 식료품 가격은 4.0%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가격은 0.7%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2 → (3월) 3.4 → (4월) 3.5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6.2월) 3.7 → (3월) 3.7 → (4월) 3.7

| 그림 33 |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그림 34 |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 상승률



자료: 인도 통계청(MOSPI)

■ (금융) '26.5월 「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환율」은 상승하였으며, 「금리」는 전월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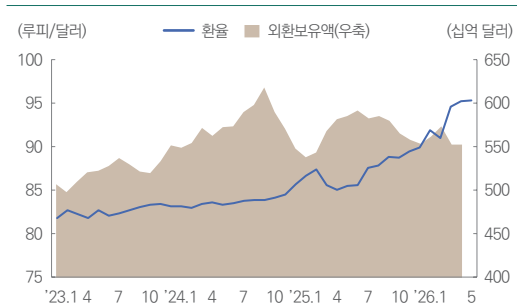
- (주가) 5월 인도 주가지수는 74,776포인트로 전월대비 2.8%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6.3월) 71,948 → (4월) 96,914 → (5월) 74,776
- (금리) 5월 인도 국채(10년물) 금리는 7.0%로 전월과 동일
 - (기준금리) 인도 중앙은행은 '25.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로 25bp 인하한 이후 세차례 연속 동결('26.2월·4월·6월)하며 중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국채 10년물(%): ('26.3월) 7.0 → (4월) 7.0 → (5월) 7.0
- (환율) 5월 미 달러 대비 루피화의 환율은 95.4루피로 전월대비 0.1% 상승
 - 환율(루피/달러): ('26.3월) 94.7 → (4월) 95.2 → (5월) 95.4
 - 외환보유액(십억 달러): ('26.2월) 573 → (3월) 552 → (4월) 55

| 그림 35 | 주가지수(SENSEX)



자료: 인도 봄베이 증권거래소(BSE)

| 그림 36 | 환율 및 외환보유액



자료: 인도 중앙은행(RBI)

05 베트남

베트남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

-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7.8%(전년동기대비) 성장
 - (경제활동별) 제조업(9.7%)과 서비스업(8.2%)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광업(5.4%)과 건설업(8.4%)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시현
 - (지출항목별) 소비(8.5%), 투자(7.2%)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출(19.9%)이 성장을 견인

표 5 |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국내총생산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년	2025년					2026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1Q
국내총생산(GDP)	7.0	8.0	7.0	8.2	8.3	8.5	7.8
농림어업	3.6	3.8	3.8	4.0	3.7	3.7	3.6
광업	-7.5	0.4	-6.1	-2.4	6.8	4.8	5.4
제조업	9.6	10.0	9.3	10.2	9.6	10.6	9.7
건설업	7.6	9.6	9.3	10.9	9.2	9.2	8.4
서비스업	7.4	8.6	7.8	9.0	8.7	8.8	8.2
최종소비	6.6	8.0	7.5	8.0	8.1	8.0	8.5
총고정자본형성	7.2	8.7	7.2	8.0	8.5	8.7	7.2
수출	16.3	16.3	9.7	14.2	15.5	16.3	19.9
수입	19.2	17.1	12.5	16.0	16.8	17.1	24.3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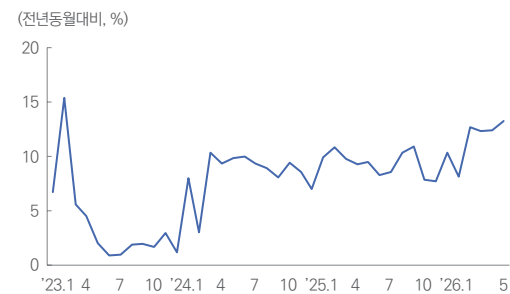
- (생산) '26.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8% 상승(전월대비 3.3%)
 - 5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0% 증가(전월대비 3.4%)
 - 전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3월) 6.9 → (4월) 9.3 → (5월) 8.8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6.3월) 7.5 → (4월) 9.1 → (5월) 9.0
 - 업종별(전년동월대비, %): (광업) 6.0 (제조업) 9.0 (발전) 8.5 (상하수·폐기물) 8.7

| 그림 37 | 산업생산 증감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그림 38 |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소비) '26.5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전월대비 0.5%)

- 국내 소비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급증하면서 소매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
 - 부문별(전년동월대비, %): (재화) 12.1 (숙박·음식) 20.1 (관광) 10.3 (기타) 14.3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6.3월) 12.4 → (4월) 12.5 → (5월)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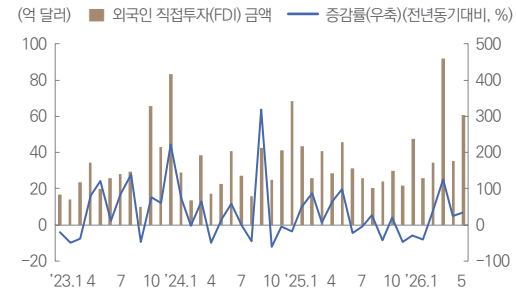
■ (투자) '26.5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1~5월 누적)은 2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

- 전체 FDI 유치액 가운데 신규 투자사업은 1,576건, 규모는 1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2.1배 증가
 - 국가별(억 달러): (한국) 42.2 (중국) 17.9 (일본) 7.1 (홍콩) 4.0 (네덜란드) 3.8

■ (교역) '26.5월 「수출」은 469억 달러(전년동월대비 18.0%), 「수입」은 521억 달러(33.8%)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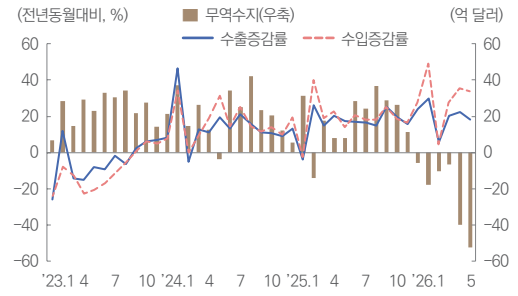
- 수출(전년동월대비, %): ('26.3월) 20.3 → (4월) 22.2 → (5월) 18.0
 - 주요 품목별(전년동월대비, %): (컴퓨터·전자기기) 46.3 (휴대전화) 10.4 (기계) 20.7
 - 주요 교역국(전년동월대비, %): (미국) 12.9 (중국) 32.9 (일본) 21.3 (한국) 0.9
- 수입(전년동월대비, %): ('26.3월) 27.9 → (4월) 35.7 → (5월) 33.8
- 무역수지(억 달러): ('26.3월) -7 → (4월) -40 → (5월) -52

| 그림 39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그림 40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 (노동시장) 2026년 1분기 「실업률」은 2.21%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 15~24세 청년 실업률은 8.86%로 전기대비 0.18%p 하락하였으며, 구직을 단념한 청년(니트, NEET²³⁾)의 수는 160만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11.4%를 차지
 - 실업률(%): ('25.3분기) 2.21 → (4분기) 2.22 → ('26.1분기) 2.21
 - 청년 실업률(%): ('25.3분기) 8.52 → (4분기) 9.04 → ('26.1분기) 8.86

■ (물가) '26.5월 「소비자물가(CPI)」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전월대비 0.3%)

- 5월 소비자물가는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확대
 - 품목별²⁴⁾ (전년동월대비, %): (식품) 5.0 (주거·전기·수도·연료·건축자재) 8.2 (교통) 12.5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6.3월) 4.7 → (4월) 5.5 → (5월) 5.6
 - 근원물가²⁵⁾(전년동월대비, %): ('26.3월) 4.0 → (4월) 4.7 → (5월)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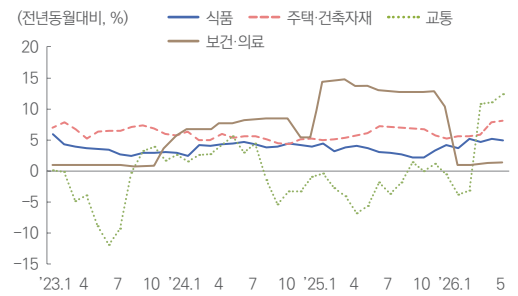
| 그림 4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물가목표는 연간 %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중앙은행(SBV)

| 그림 42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23)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취업, 직업훈련 등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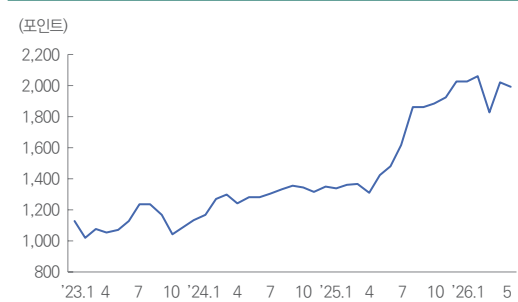
24) 소비자물가 11개 구성항목의 가중치('25.2월 기준, %): (식품) 35.8 (주택·건축자재) 22.7 (교통) 10.0 (교육) 6.0 (가정용품) 5.1 (보건·의료) 4.7 (우편·통신) 3.7 (기타) 3.6 (의복) 3.5 (문화·관광) 3.1 (주류·담배) 1.8

25) 식품, 에너지,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의료·교육비 등)을 제외한 물가

■ (금융) '26.5월 「주가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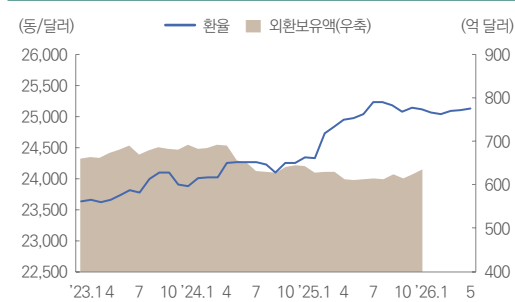
- (주가) 5월 베트남 주가지수는 1,997포인트로 전월대비 1.3% 하락
- 주가지수(포인트): ('26.3월) 1,830 → (4월) 2,023 → (5월) 1,997
- (금리) 5월 베트남 국채(10년물) 금리는 4.3%로 전월대비 상승
- 국채 10년물(%): ('26.3월) 4.2 → (4월) 4.2 → (5월) 4.3
- (환율) 5월 미 달러 대비 동화의 환율은 25,139동으로 전월대비 0.1% 상승
- 환율(동/달러): ('26.3월) 25,102 → (4월) 25,113 → (5월) 25,139
- 외환보유액(억 달러): ('25.10월) 615 → (11월) 623 → (12월) 635

| 그림 43 | 주가지수(VN30)



자료: CEIC

| 그림 44 | 환율 및 외환보유액¹⁾



주: 1) 2025년 12월까지 가용

자료: 베트남 중앙은행(SBV), IMF

IV

대외경제 이슈

생성형 AI와 생산성 – 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대외경제 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대외경제 이슈

생성형 AI와 생산성 – 한국 및 OECD 주요국 비교

경제분석총괄과 김경수 경제분석관(02-6788-4670)

1 검토배경

- 한국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를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중요해 지고 있음
 - OECD 주요국들은 생산가능인구 및 투자의 감소로 중장기 성장이 정체 내지 하락
 - G7 5년 평균 잠재성장률: (2015~2019) 1.2% → (2020~2025) 1.3%
 - 한국 5년 평균 잠재성장률: (2015~2019) 2.9% → (2020~2025) 2.4%
 -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고 투자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선진경제(advanced economies)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음
 - 동일한 노동과 자본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한 생산성 증가가 필요
 - 경제 전체의 노동과 자본투입 이외의 생산성 증가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로 나타남
- 2022년 chatGPT 3.5 출시 이후 생성형 AI는 인간의 직무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노동 대체·보완 및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 증가의 가능성을 가지게 됨
 - AI는 챗봇, 멀티모달, 추론, 에이전틱 AI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범용인공지능(이하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²⁶⁾으로 까지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음
 - 전기, PC, 인터넷 등 기존 범용기술²⁷⁾은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활용도가 높아진 이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였던 것으로 나타났음²⁸⁾
 - 증기기관, 전기, PC, 인터넷, 모바일 등은 도입 초기 특정 직무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이었지만, 이후 경제사회 모든 영역과 생산과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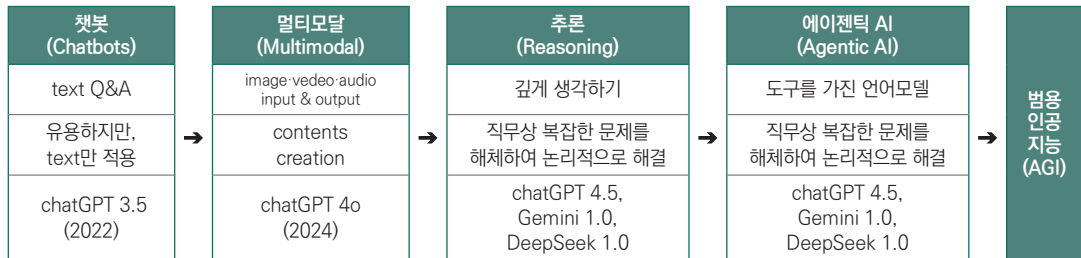
26) 범용인공지능(AGI)이란 특정 과제나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적 활동 전반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지적 유연성과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의미

27) 범용기술(GPT)은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처럼 국가나 세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와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반 기술을 의미

28) Robert Solow는 대규모 IT 투자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 지표에는 뚜렷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는 생산성 역설(Solow's Productivity Paradox)을 주장한 바 있음

- PC와 인터넷은 도입 초기에 업무효율 저하나 학습비용으로 인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작업방식의 혁신과 인력과 기술의 통합으로 통계적으로도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음
- 최근 들어 AI가 챗봇에서 에이젠틱 AI로 발전함에 따라 범용기술(GPT)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가지게 됨
 - AI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직무(task)를 보완·대체함으로써 작업장 내에서의 미시적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노동만으로는 단기간에 수행할 수 없는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AI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발전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AI로 인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와 전체 산업의 AI에 대한 노출도와 도입속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 (미시적 생산성 증가) AI로 인한 노동 절감 및 보완을 통한 직무과정의 생산성 증가를 의미
- (거시적 생산성 증가) AI에 의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의 정도이며, 이는 산업별 가중평균 AI 노출도와 AI 도입률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 (AI 노출도) AI로 인해 대체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제 부문의 부가가치(GDP) 비율을 의미
 - (AI 도입률) AI 도입률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AI를 활용한 비율을 의미

■ 국가별, 산업별 AI 노출도 및 도입률 등의 차이로 AI 생산성 증가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산업별 AI 노출도 및 도입률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AI 선도국(frontier)과 한국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실제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ains)의 차이로 연결
- 한국은 AI 도입률이 최상위 국가이지만, AI 선도국에 비해서는 산업별 AI 노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한국과 OECD 주요국별로 추정하고 시사점을 제시

- OECD 및 ILO 자료를 토대로 OECD 주요 7개국(G6 및 한국)의 산업별 AI 노출도(Industry AI Exposure) 등을 추산하고 국가별 주요 특징 및 함의를 살펴봄
- 국가별·산업별 AI 노출도, AI로 인한 미시적 생산성 증가 및 AI의 도입률 등을 검토하여 국가별 향후 10년간 AI 생산성 증가를 추정

2 산업별·국가별 AI 노출도

가. 산업별 AI 노출도의 정의, 자료 및 대상

- AI 노출도(AI Exposure)는 현재 수행 중인 업무가 AI 기술로 인해 대체되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

- AI 노출도가 높을수록 AI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며, 그로 인해 고용 구조가 재편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

- 기존 직무 중심(task-based)의 직업별(occupational) AI 노출도는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개별 기업이나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음

-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AI의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혹은 창출을 계산해야 하지만, 직업별 AI 노출도로는 이를 계산하기 어려움
- 산업별 혹은 업종별 AI 노출도를 통해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혹은 생산성 증가를 추정할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²⁹⁾에서 도출한 직업별 AI 노출도를 산업별 AI 노출도로 분류 매칭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G6국가들의 산업별 AI 노출도를 계산

- 직업별 AI 노출도는 Felten et al.(2021), Webb(2020), Eloundou et al.(2024)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해 전세계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최근 AI 발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ILO에서 발표한 직업별 AI 노출도를 이용
 - Felten et al.(2021)의 직업별 AI 노출도는 직무역량에 대응되는 AI 역량이 10개 응용분야로 한정되고, 일부 응용분야(실시간 비디오게임 수행 능력 등)는 직무 역량과 접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 Webb(2020)의 AI 노출지수는 직업을 구성하는 과업들의 내용과 AI 특허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지만, 특허의 개수가 AI의 활용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Eloundou et al.(2024)은 생성형 AI에 대한 직업별 노출도를 계산하였지만, 자동화 또는 증강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Gmyrek.et.al(2025)의 직업별 AI 노출도(이하 ILO AI 노출도)는 생성형 AI에 특화된 설문을 이용하여 현직자와 전문가의 판단을 반영, 특히 전세계(global) 공통으로 직업별 AI 노출도를 적용할 수 있어서 산업별, 국가별 AI 노출도의 도출 및 비교에 있어서 장점이 있음

29) Gmyrek.et.al(2025), 「Generative AI and Jobs – A Refined Global Index of Occupational Exposure」, ILO Working Paper 140.

■ 직업별 AI 노출도인 ILO AI 노출도를 한국과 G6 국가들의 25개 산업별 AI 노출도로 매칭

- ILO AI 노출도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4 digit) 상 427개 직업의 AI 노출도이며, 이를 ILO stats의 각국 제4차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의 25개 산업으로 매칭³⁰⁾
- 산업의 AI 노출도는 각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의 AI 노출도를 고용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의, 즉, j 산업의 AI 노출도는 j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직업들의 AI 노출도를 각 직업들이 j 산업의 고용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정의
 - ISIC Rev 4의 25개 산업은 각각 10개의 직업³¹⁾으로 구성
 - j 산업의 AI 노출도는 ex_j 이며, $ex_j = \sum_{o=1}^{10} w_{o,j} ex_{o,j}$ 로 정의
 - 여기서 $ex_{o,j}$ 는 j 산업의 직업 o 의 AI 노출도, $w_{o,j} = \frac{employ_{o,j}}{\sum_{o=1}^{10} employ_{o,j}}$ 은 j 산업에서 직업 o 가 차지하는 고용비중
- 국가별·산업별 AI 노출도를 계산하기 위해 Gmyrek.et.al(2025)의 ILO AI 노출도, ILO stats³²⁾의 국제표준직업분류별 고용 및, 국제표준산업분류별 고용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G6 국가들을 대상³³⁾

나. 국가별·산업별 AI 노출도 추정결과

■ G6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 AI 노출도가 높았음

- G6 국가들은 모두 금융·보험업 산업의 AI 노출도가 0.60 수준으로 높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문 역시 0.50 이상으로 높았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0.40 이상이었음
 - G6 평균 상위 AI 노출도: 금융·보험업 0.59,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42, 공공행정 및 국방 0.41
- 한국도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의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상위 AI 노출도: 금융·보험업 0.58,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공공행정 및 국방 0.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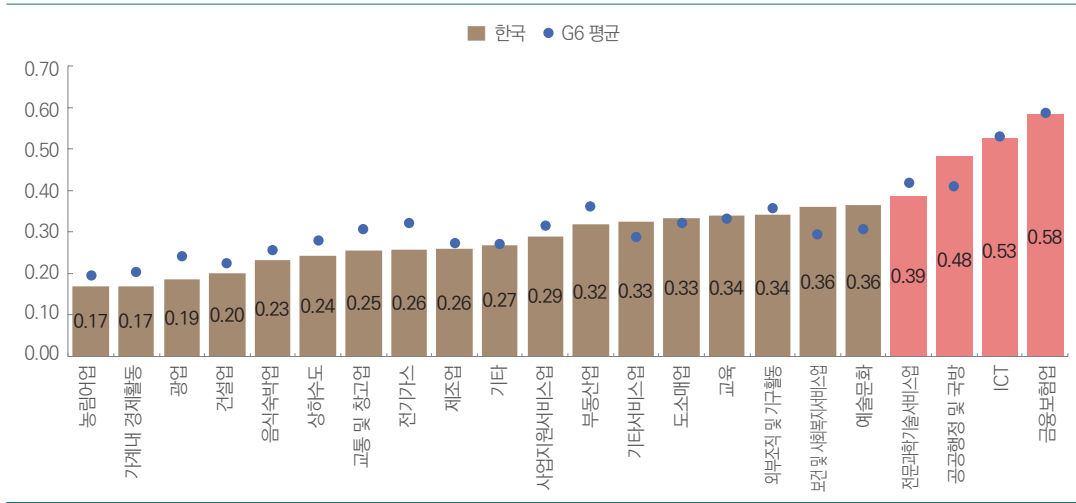
30) ISIC Rev.4의 25개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상하수도폐기물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수리업, 교통·운수·창고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사회사업 및 보건, 예술·문화업, 기타서비스업, 가구내경제활동, 외부기관활동, 미분류업종임.

31) 각 산업의 직업은 1. 관리자(managers), 2. 전문가(professionals), 3. 전문기술자(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4. 사무보조원(Clerical support workers), 5. 서비스 및 판매직 근로자(Service and sales workers), 6. 숙련된 농림어업종사자(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7. 제조 및 판매 기능직(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8. 공장기계 운영 및 조립공(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9. 초보 기능직(Elementary occupations, 10. 기타 미분류 직업(Not elsewhere classified) 등 10개로 구성됨.

32) ILO(2026), ILO통계(<https://ilostat.ilo.org>)

33) G7 국가 중 제4차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의 자료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G6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1 | 한국과 G6의 산업별 AI 노출도



주: G6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의미
 자료: Gmyrek.et.al(2025), ILO stats(2026)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시로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큰 산업일수록 AI 노출도가 컸음

- 정보통신서비스업 업종은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직접 공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분석 등 AI 기술 친화적인 인지적·사무적 업무 비중이 매우 높음
- 금융·보험업은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숫자와 기록으로 이루어진 상품의 특성상 데이터의 수집·분석·처리를 AI가 대신 처리가 가능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법률, 회계, IT, 연구개발 등)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코딩 등 ‘비반복적·인지적’ 작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공공행정 및 국방은 서류 검토, 민원 응답, 법률 및 규정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 업무를 AI로 자동화가 가능하고, 정보 수집 및 정찰(ISR), 사이버 보안, 자율 무기 체계 및 전투 시뮬레이션 등 필수적 기술을 AI로 보완이 가능

표 1 | 한국 및 G6 국가들의 AI 노출도 상위 4개 산업 현황

	G6 평균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1	금융·보험 0.59	금융·보험 0.58	금융·보험 0.57	금융·보험 0.57	금융·보험 0.58	금융·보험 0.59	금융·보험 0.62	금융·보험 0.59
2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정보통신서비스업 0.52	정보통신서비스업 0.51	정보통신서비스업 0.54	정보통신서비스업 0.52	정보통신서비스업 0.58	정보통신서비스업 0.51
3	전문·과학기술 0.42	공공행정·국방 0.48	공공행정·국방 0.41	전문·과학기술 0.41	전문·과학기술 0.40	공공행정·국방 0.43	전문·과학기술 0.47	국제기구활동 0.44
4	공공행정·국방 0.41	전문·과학기술 0.39	전문·과학기술 0.40	공공행정·국방 0.41	국제기구활동 0.40	전문·과학기술 0.41	공공행정·국방 0.45	전문·과학기술 0.42

자료: Gmyrek.et.al(2025), ILO stats(2026)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업의 직업구성이 전문가와 전문기술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AI 노출도가 높았음

- AI 노출도 상위 4개 산업의 직업구성은 직업별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가(professionals)와 전문기술자(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의 고용이 해당 산업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
 - 금융·보험업의 전체 고용에서 전문가와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60%이며, 미국은 65%, 일본³⁴⁾은 60% 수준
 -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전체 고용에서 전문가와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90%, 미국은 66%, 일본은 83% 수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전체 고용에서 전문가와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92%, 미국은 68%, 일본은 90% 수준
 - 공공행정 및 국방의 전체 고용에서 전문가와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58%, 미국은 51%, 일본은 67%

표 2 | AI 노출도 상위 4개 산업의 전문가 직종 및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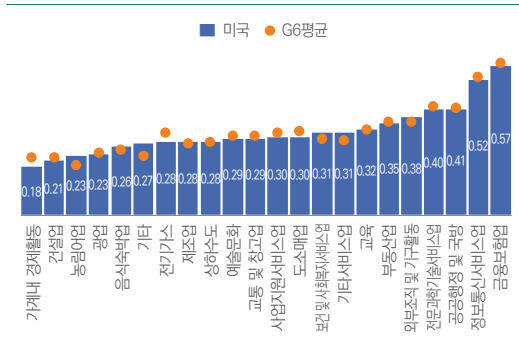
	산업	산업별 AI 노출도	전문가 직종		전문기술자 직종		전문가+전문기술자
			직종 AI 노출도	고용비중	직종 AI 노출도	고용비중	고용비중
한국	금융보험업	0.58	0.59	0.12	0.59	0.48	0.60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0.57	0.72	0.41	0.18	0.9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9	0.41	0.61	0.35	0.31	0.92
	공공행정 및 국방	0.48	0.42	0.08	0.54	0.50	0.58
미국	금융보험업	0.57	0.59	0.33	0.59	0.32	0.65
	정보통신서비스업	0.52	0.57	0.52	0.41	0.14	0.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40	0.41	0.48	0.35	0.20	0.68
	공공행정 및 국방	0.41	0.42	0.27	0.54	0.24	0.51
일본	금융보험업	0.62	0.59	0.04	0.64	0.56	0.60
	정보통신서비스업	0.58	0.57	0.60	0.70	0.23	0.8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47	0.41	0.54	0.59	0.36	0.90
	공공행정 및 국방	0.45	0.42	0.07	0.60	0.62	0.67

주: 일본의 상위 4개 산업은 전문기술자 직종이 없기 때문에 대신 사무보조원의 노출도와 고용비중으로 대체
 자료: ILO, OEC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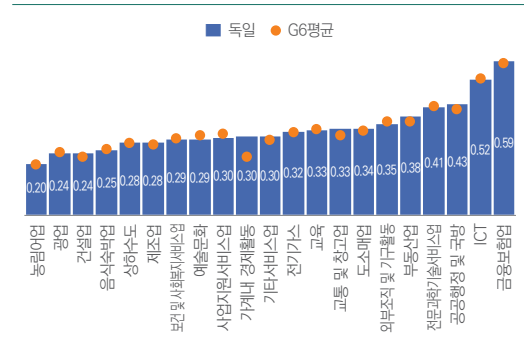
34) 일본은 금융·보험업의 직종 중 전문기술자 직종의 고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전문기술자 직종 대신 사무보조원의 노출도와 고용비중으로 대체하였음. 이하 일본의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도 마찬가지로 전문기술자 직종을 사무보조원 직종으로 대체하여 고용비중을 제시함

| 그림 2 | G6 국가별 산업별 AI 노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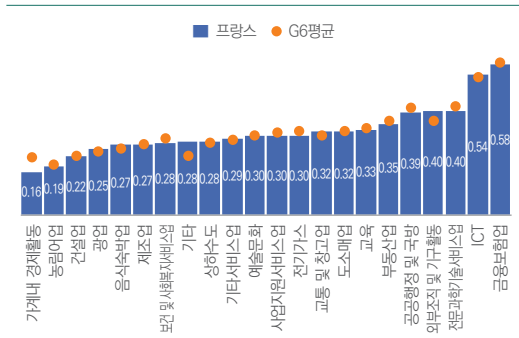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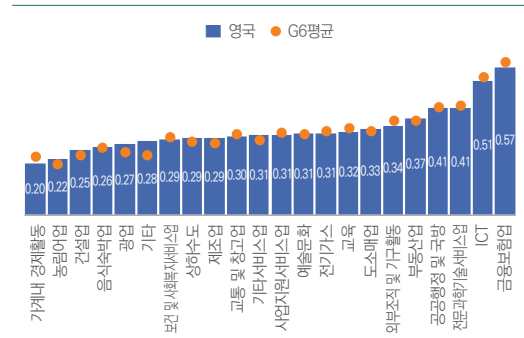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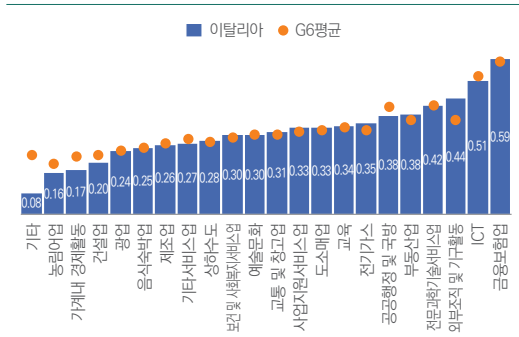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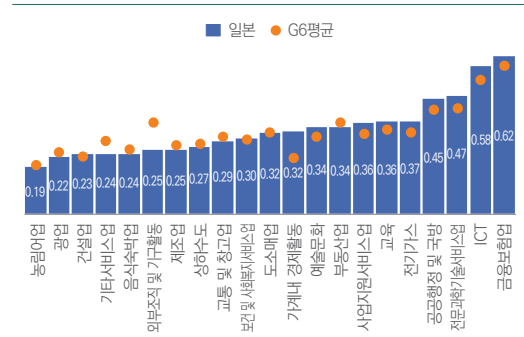
영국



이탈리아



일본



자료: ILO, OECD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은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도소매업, 예술문화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등 6개 산업의 AI 노출도가 G6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 공공행정, 디지털 교육,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AI 기술의 적용 및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업 인프라가 G6 국가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UN 전자정부 발전지수가 전 세계 193개국 중 4위(2024년 기준)이며, 이중 '온라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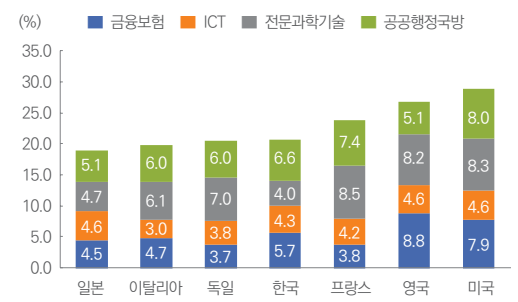
분야는 세계 1위를 기록하였고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는 69개국 중 15위(2025년 기준)를 기록한 바 있음

- 반면 한국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의 산업에서는 AI 노출도가 G6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영국 등은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GDP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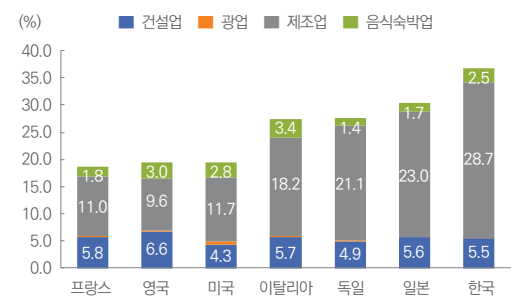
- AI 노출도가 높은 4개 산업(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국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미국은 상위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8.8%로 G6 국가 중 가장 높았음
 - 금융·보험 7.9%, 정보통신서비스업 4.6%, 전문·과학기술 8.3%, 공공행정·국방 8.0%
- 영국의 상위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7%, 프랑스 23.9%, 한국 20.6%, 독일 20.6%, 이탈리아 19.8%, 일본 19.0%의 순임

| 그림 3 | 상위 AI 노출도 산업의 GDP 비중



자료: OECD(2025), Input-Output table

| 그림 4 | 하위 AI 노출도 산업의 GDP 비중



자료: OECD(2025), Input-Output table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독일, 프랑스 등은 AI 노출도가 낮은 산업의 GDP 비중이 높았음

- 농림어업을 제외한 AI 노출도가 낮은 4개 산업(건설업, 광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높았음
- 한국은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음
 - 제조업 28.7%, 건설업 5.5%, 음식·숙박업 2.5%, 광업 0.1%
- 일본의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30.4%, 독일 27.6%, 이탈리아 27.4%, 미국 19.4%, 영국 19.4%, 프랑스 18.7%의 순임

■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국가별·산업별 AI 노출도는 국제표준산업분류상 25개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 업종분류가 많은 제조업이 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있음

- 제조업은 AI 노출도가 G6 평균은 0.27, 한국은 0.26으로써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제조업을 단일 업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의 하위 10개 이상의 세부업종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3 AI 생산성 증가

가. 선행연구

■ AI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를 비롯한 AI 낙관론과 AI 비관론 및 최근의 국제기구에 의한 연구 등이 있음

- 초기 연구는 AI로 인한 거시경제 전체적인 급격한 자동화의 진전을 새로운 산업의 창출 등을 생산성 증가로 추산
- AI 비관론과 낙관론은 직무 수준(task level)에서 AI 노출도(exposure)와 비용절감(cost savings) 및 AI 도입(take-up)을 고려하여 생산성 증가를 추산
 - AI 노출도와 비용절감 및 AI 도입률의 크기에 따라 생산성 증가가 달라짐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산업 수준(sectoral level)에서의 AI 노출도(exposure)와 비용절감(cost savings) 및 AI 도입(take-up)을 고려하여 생산성 증가를 추산

■ 초기 연구는 AI가 노동대체 및 보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직종의 출현 등으로 생성형 AI 생산성 붐을 일으켜 연간 노동생산성을 최대 3.4%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

- Mckinsey(2023)³⁵⁾는 AI로 인해 업무의 60~70%가 자동화되고 다른 자동화 기술과 결합될 경우 전세계 연간 노동생산성이 최대 3.4% 증가할 것으로 추정
- Goldman Sachs(2023)³⁶⁾는 AI의 도입 이후 10년간 미국과 영국의 노동생산성을 연간 1.5% 증가시키고, 전세계 GDP를 7%(연간 7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 AI 비관론(pessimism): Acemoglu(2024)³⁷⁾는 향후 10년간 AI로 인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분은 0.71%p, 전체 GDP 증가분은 1.1%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

- Acemoglu는 AI로 인한 직무(task) 수준의 비용절감률을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의 GDP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AI의 생산성 증가분(TFP증가분)을 추정³⁸⁾
- 생산성 증가 =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의 평균 비용 절감률(0.154)
×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의 GDP 비율(0.046) = 0.0071
- Acemoglu는 미국을 대상으로 AI로 인한 평균 비용 절감률과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GDP 비율을 각각 15.4%와 4.6%로 낮게 설정하여 생산성 증가분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
 -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AI로 인한 사회적 해악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생산성 증가분이 음이 될 수도 있음

35) Mckinsey(2023),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Special Report.

36) Goldman Sachs(2023), 「The Potentially Larg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Economic Growth」, Global Economics Analyst

37) Acemoglu(2024),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38)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d\ln TFP = \bar{\pi} \times GDP \text{ share of tasks impacted by AI}$ 이며, $\bar{\pi}$ 는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직무의 평균 비용 절감률임. AI에 의한 GDP 증가는 $d\ln Y = d\ln TFP + s_k d\ln K$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s_k 는 자본소득분배율, K 는 경제 전체의 자본저량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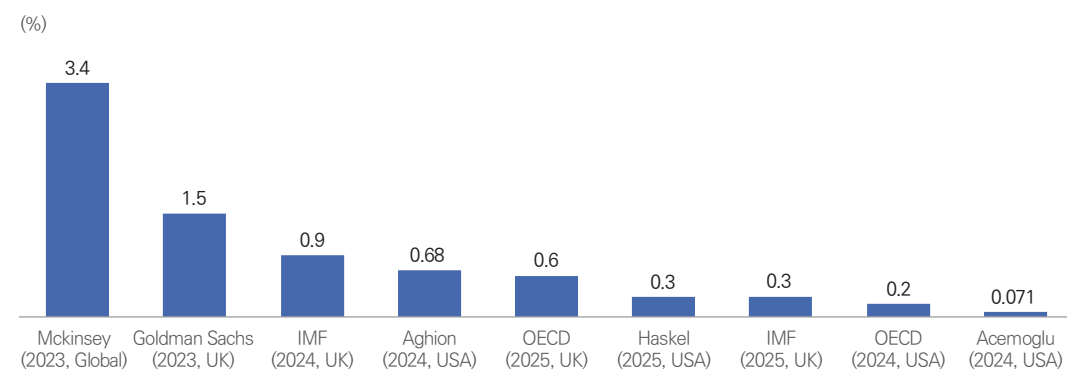
■ AI 낙관론(optimism) : Aghion and Bunel(2024)³⁹⁾은 향후 10년간 AI로 인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분을 6.8%p로 추정하여 Acemoglu(2024)의 추정치 보다 10배 정도 클 것으로 추정

- Aghion은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다음과 같은 구성성분의 곱으로 추정
- 생산성 증가분 = 평균 AI 노출도(exposure)(0.6)
 - × 평균 AI 도입률(0.5)
 - × AI로 인한 평균 비용 절감률(0.4)
 - × AI 노출조정 노동소득분배율(0.57) = 0.068
- Aghion은 미국을 대상으로 산업별 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한 AI 노출도를 60%, AI의 도입률을 50%로 설정하여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OECD의 추정 : OECD(2025)⁴⁰⁾는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AI로 인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분을 추정하였고, 미국의 경우 최소 4.1%p에서 최대 12.8%p로 추정

- OECD는 Acemoglu(2024)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별(sectoral) 생산성 증가를 계산한 후 이를 집계하여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가로 바꾸는 방식을 적용
- j 산업의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 미시적 생산성 증가
 - × j 산업의 평균 AI 노출도(exposure)
 - × j 산업의 AI 도입률의 변화
- OECD의 생산성 증가 추정방법은 AI로 인한 산업별 생산성 증가를 토대로 이를 집계하였다는 점에서 산업간 AI 노출도와 도입률의 격차 및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음

| 그림 5 | AI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ains)를 추정한 선행연구



주: McKinsey(2023), Goldman Sachs(2023), IMF(2024)는 노동생산성 증가, 나머지는 모두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9) Aghion and Bunel(2024), 「AI and Growth: Where Do We Stand?」,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Special Report.

40) OECD(2025), 「Macroeconomic Productivity gain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in G7 economie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나. AI 생산성 증가 추정 방법

■ 본고는 Acemoglu(2024)의 이론적 방법론 토대로 최근의 OECD(2025)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 및 G6 국가들의 AI 생산성 증가를 추정

- Acemoglu(2024)는 Hulten' theorem을 이용하여 AI로 인한 미시적인 생산성 향상을 거시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과 GDP의 증가로 연결시켰음
 - AI의 생산성 증가를 결정하는 모수값을 생성형 AI의 초기단계에서 조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생산성 증가를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 OECD(2025)는 G7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산업별 AI 노출도와 도입률을 기존 문헌을 토대로 계산하여 각 국가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도출하였음
 - 미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존 직업별(occupational) AI 노출도를 토대로 G7 국가들에 대해 각각 산업별(sectoral) AI 노출도를 계산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AI로 인한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가 미시적 생산성 증가,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도입률의 곱으로 결정(식 1)되는 것으로 추정⁴¹⁾

- $$\Delta \ln TFP = \sum_{j=1}^J \delta_j \Delta \ln TFP_j = \bar{\pi} \times \sum_{j=1}^J \delta_j ex_j \times \sum_{j=1}^J \delta_j ado_j \quad (1)$$
 - 여기서 $\Delta \ln TFP$ 는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로그값, δ_j 는 j 산업의 GDP(부가가치) 비중, $\bar{\pi}$ 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 ex_j 는 j 산업의 평균 AI 노출도, ado_j 는 j 산업의 AI 도입률 증감을 의미
 -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 ($\sum_{j=1}^J \delta_j ex_j$),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도입률 증감($\sum_{j=1}^J \delta_j ado_j$) 등 3가지 항목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는 국가별·산업별 노출도와 각국 산업별 부가가치(GDP)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 각국의 산업별 AI 노출도에 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GDP) 비중을 곱한 후, 이를 전산업으로 합산하여 각국별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를 추정
- 각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OECD의 Input-output table의 자료를 이용

■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와 산업별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도입률 증감($\sum_{j=1}^J \delta_j ado_j$)은 기존 문헌과 OECD의 조사자료를 참조, 산업별 가중평균 AI 노출도는 OECD 및 ILO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

-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는 AI가 전체적인 직무수준(task level)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실험적인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인 0.3을 적용
 - AI의 미시적 생산성 증가를 연구한 기존 7개 선행연구 추정치의 평균값(0.37)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표준오차를 반영하여 0.3으로 조정

41) 자세한 도출방법은 [box 1] 참조

| 표 3 | AI로 인한 미시적 생산성 증가 추정치

선행연구	추정치 단위	추정치	표준오차
Brynjolfsson et al.(2025)	산출 증가율(%)	0.15	0.015
Peng et al.(2023)	직무 당 시간 절감률(%)	0.56	0.169
Noy and Zhang(2023)	직무 당 시간 절감률(%)	0.40	0.051
Dell'Acqua et al.(2023)	산출 증가율(%)	0.39	0.019
Haslberger et al.(2023)	직무 당 시간 절감률(%)	0.29	0.032
Cui et al.(2024)	직무당 산출 증가율	0.26	0.103
Cambacorta et al.(2024)	산출의 로그증가	0.53	0.078
조정평균		0.30	

자료: 각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산업별 가중평균 AI 도입률은 OECD(2026)⁴²⁾가 조사한 결과를 활용
 - OECD(2026)는 AI 도입률(adoption rates)을 AI가 실제 생산과정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각국별 설문조사와 미시데이터⁴³⁾를 바탕으로 추정
- OECD(2026)는 각국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2025년 기준) 수준의 AI 도입률을 구한 후, AI 도입률이 향후 S자 형태의 시간적 추세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
 - 기존 GPT 기술인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초기 도입률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중기 이후에는 도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도입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는 경험적 사실을 반영

| 표 4 | 국가별 AI 도입률 및 10년 후 도입률 추정치

(단위: %)

	현재 도입률(A)	10년 후 도입률(B)	도입률 증가(B-A)
미국	5	48	43
영국	5	47	42
한국	6	50	44
독일	5	45	40
일본	3	35	32
이탈리아	2	32	30
프랑스	3	36	33

자료: 각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2) OECD(2026), 「AI meets trade : Global linkages and the cross-country distribution of the gains from AI」,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43) 직전 2주 이상 적어도 1번 이상 직무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임.

- OECD(2026)에 의하면 향후 10년 간 미국, 영국, 한국 등의 AI 도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AI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국은 2026년 현재 도입률은 6% 수준이고 10년 후에는 도입률이 50%로 추정되어 도입률이 44%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미국은 2026년 현재 도입률은 5% 수준이고 10년 후에는 도입률이 48%로 추정되어 도입률이 43%p 증가할 것으로 추정

다. AI 생산성 증가 추정 결과

■ AI의 산업별 노출도와 이를 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한 AI 노출도 및 AI의 산업별 도입률의 차이가 국가간 생산성 증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미국, 영국, 한국, 독일 등은 AI로 인한 향후 10년간 생산성이 4.0%p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는 3.0%p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향후 10년간 AI 생산성 증가(%p): 미국 4.52, 영국 4.5, 한국 4.36, 독일 4.1, 프랑스 3.33, 일본 3.24, 이탈리아 3.18

■ AI로 인한 한국의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는 4.4%p, 미국은 4.5%p, 영국은 4.5%p, 독일은 4.1%p, 프랑스는 3.3%p, 일본은 3.2%p, 이탈리아는 3.2%p 등으로 나타났음

- 미국, 영국, 한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되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의 생산성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됨
- 연간 증가분으로는 한국은 AI로 인해 생산성이 연간 0.44%p 증가하고 미국은 0.45%p, 영국은 0.45%p, 독일은 0.41%p, 프랑스는 0.33%p, 일본은 0.32%p, 이탈리아는 0.32%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5 | 향후 10년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미시적 생산성 증가(A)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B)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도입률 증가(C)	생산성 증가(ΔTFP) ($A \times B \times C$)
미국	0.30	0.35	0.43	0.0452
영국	0.30	0.36	0.42	0.0450
한국	0.30	0.33	0.44	0.0436
독일	0.30	0.34	0.40	0.0410
프랑스	0.30	0.34	0.33	0.0333
일본	0.30	0.34	0.32	0.0324
이탈리아	0.30	0.33	0.32	0.0318

주: AI 도입률은 OECD자료를 토대로 추산된 결과
 자료: OECD, ILO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가 높고 AI 도입률 증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영국은 한국에 비해 향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영국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AI 도입률 증가의 차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어서 생산성 증가가 한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미국과 영국은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가 한국에 비해 더 높고 AI 도입률의 증가는 한국에 비해 더 낮지만, 가중평균 AI 노출도의 격차가 더 커서 한국보다 생산성 증가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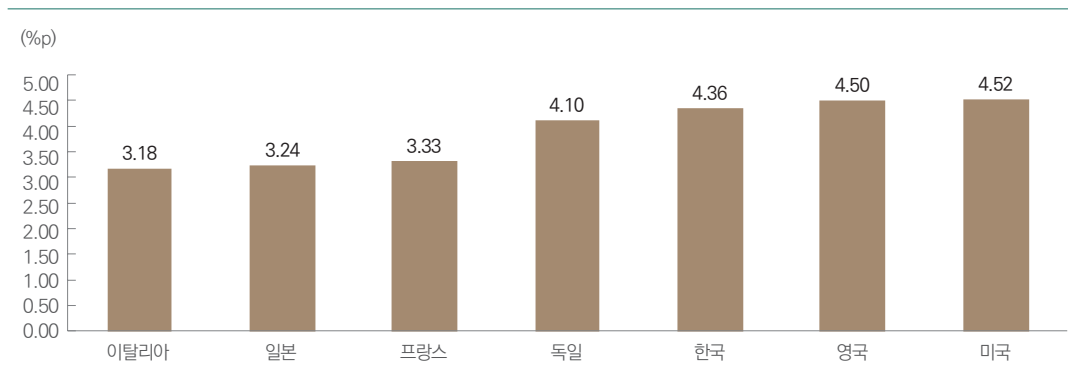
■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은 한국에 비해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가 높지만, AI 도입률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생산성 증가가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4개국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낮고 AI 도입률 증가도 낮아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생산성 증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AI 생산성 증가에 대한 추정은 부문간 생산요소의 이동과 노동과 자본간의 소득분배 등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 분석 결과로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태적 분석은 AI로 인한 산업내 고용변화와 산업간 고용이동 등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AI로 인한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노동대체로 인해 해당 부문의 고용과 노동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별 생산성 증가에 초점을 맞추었음

| 그림 6 | AI로 인한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ains) 추정 결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요약 및 시사점

■ OECD 주요 국가별 산업별 생성형 AI 노출도를 추산하고 이를 토대로 AI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향후 10년간 누적)를 추정

- OECD 및 ILO 자료를 토대로 OECD 주요 7개국(G6 및 한국)의 산업별 인공지능 노출도(Industry AI Exposure) 등을 추산하고 국가별 주요특징 및 함의를 살펴봄
- 국가별 산업별 AI 노출도, AI로 인한 미시적 생산성 증가 및 AI의 도입률 등을 검토하여 국가별 향후 10년간 AI 생산성 증가(Productivity Gains)를 추정

■ G6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이하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 AI 노출도가 높았음

- G6 국가들은 모두 금융·보험업 산업의 AI 노출도가 0.60 수준으로 높았고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문 역시 0.50 이상으로 높았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0.40 이상이었음
 - G6 평균 상위 AI 노출도: 금융·보험업 0.59,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42, 공공행정 및 국방 0.41
- 한국도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의 AI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상위 AI 노출도: 금융·보험업 0.58, 정보통신서비스업 0.53, 공공행정 및 국방 0.4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9

■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영국 등은 AI 노출도가 높은 산업의 GDP 비중이 높았음

- AI 노출도가 높은 4개 산업(금융·보험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국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미국은 상위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8.8%로 G6 국가 중 가장 높았음
 - 금융·보험 7.9%, 정보통신서비스업 4.6%, 전문·과학기술 8.3%, 공공행정·국방 8.0%
- 영국의 상위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26.7%, 프랑스 23.9%, 한국 20.6%, 독일 20.6%, 이탈리아 19.8%, 일본 19.0%의 순임

■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독일, 프랑스 등은 AI 노출도가 낮은 산업의 GDP 비중이 높았음

- 농림어업을 제외한 AI 노출도가 낮은 4개 산업(건설업, 광업, 제조업, 음식숙박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높았음
- 한국은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36.7%로 가장 높았음
 - 제조업 28.7%, 건설업 5.5%, 음식·숙박업 2.5%, 광업 0.1%

- 일본의 4개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이 30.4%, 독일 27.6%, 이탈리아 27.4%, 미국 19.4%, 영국 19.4%, 프랑스 18.7%의 순임

■ AI의 산업별 노출도와 이를 부가가치로 가중평균한 AI 노출도 및 AI의 산업별 도입률의 차이가 국가간 생산성 증가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AI로 인한 한국의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는 4.4%p, 미국은 4.5%p, 영국은 4.5%p, 독일은 4.1%p, 프랑스는 3.3%p, 일본은 3.2%p, 이탈리아는 3.2%p 등으로 나타났음
- 미국, 영국, 한국, 독일의 생산성 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되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의 생산성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가 높고 AI 도입률 증가도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영국은 한국에 비해 향후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영국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높고 AI 도입률 증가의 차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어서 생산성 증가가 한국에 비해 높음
-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은 한국에 비해 부가가치 가중평균 AI 노출도가 높지만, AI 도입률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생산성 증가가 한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AI 부문 투자확대 필요

-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투자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노동과 자본의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
- 현재 수준의 AI 노출도와 도입률로 한국은 향후 10년간 4.4%p 만큼의 생산성 증가가 추정되기 때문에 AI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생성형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산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별 맞춤형 AI 투자의 확대 필요
 - 한국의 음식·숙박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낮고, 노동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므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 필요
 - 한국의 제조업은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므로 로봇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BOX 1] A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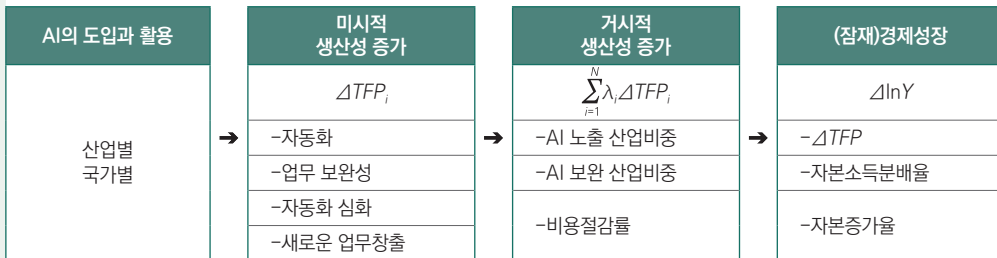
■ AI가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시적 생산성 증가 → 거시적 생산성 증가 → (잠재) 경제성장」로 구분할 수 있음

- 미시적 생산성 증가와 거시적 생산성 증가는 각각 개별 기업 혹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난다.
- 미시적 생산성 증가⁴⁴⁾⁴⁵⁾ (ΔTFP_i)는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직무(task)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는 개별 기업과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직무의 효율성 증가는 크게 ①자동화(automation), ②업무 보완성(task complementarity) ③자동화 심화(deepening of automation) ④새로운 업무창출(new tasks)임

■ 거시적 생산성 증가($\sum_{i=1}^N \lambda_i \Delta TFP_i$, 여기서 λ_i 는 개별기업 혹은 산업의 비중)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로 인해 전체 산업과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를 의미

- AI에 노출되고 AI에 의해 보완되는 직무, 직업 및 산업의 비중을 토대로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를 구할 수 있음
- 미시적 생산성 증가와 거시적 생산성 증가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AI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소득분배율 및 자본증가율을 토대로 경제성장 증가분을 구할 수 있음($\Delta \ln Y$)

AI의 도입과 활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



44) Acemoglu(2024),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NBER working paper

45) Brynjolfsson(2021), "The Productivity J-curve: How Intangibles Complement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021, 13(1)

■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Acemoglu(2018)⁴⁶⁾와 Aghion(2024)⁴⁷⁾의 방법론을 제시

-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식(1) 나타낼 수 있음

$$-\frac{\Delta TFP}{TFP} = \sum_{j=1}^J \delta_j \frac{\Delta A_j}{A_j}, \quad \delta_j = \frac{p_j y_j}{\sum p_j y_j} \quad (\text{식 1})$$

- 여기서 TFP 는 경제전체 중요소생산성, A_j 는 j 산업의 중요소생산성, p_j 와 y_j 는 각각 j 산업의 물가수준과 생산량이며, δ_j 는 경제전체의 부가가치에서 j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의 평균 비용 절감률을 $\bar{\pi}$ 로 놓고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의 GDP 비중을 $\frac{p_j y_j}{GDP}$ 로 놓으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식 2)가 됨

$$-\Delta \ln TFP = \bar{\pi} \times \sum_{j=1}^J \frac{p_j y_j}{p_j y_j} = \bar{\pi} \times \sum_{j=1}^J \frac{p_j y_j}{GDP} \quad (\text{식 2})$$

- $\bar{\pi}$ 는 평균 비용 절감률, $\frac{p_j y_j}{GDP}$ 는 AI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j 의 부가가치

- OECD(2025)에 의하면 j 산업의 AI 노출도를 ex_j , j 산업의 AI 도입률을 ado_j 로 놓을 때, AI로 인한 j 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다음과 같이 (식 3)으로 표시할 수 있음

$$-\Delta \ln TFP = \bar{\pi} \cdot ex_j \cdot ado_j \quad (\text{식 3})$$

- (식 1)의 Hulten's theorem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Delta TFP = \sum_{j=1}^J \delta_j \Delta TFP_j$ 이고 (식 3)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식 4)로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나타낼 수 있음

$$-\Delta \ln TFP = \sum_{j=1}^J \delta_j \Delta \ln TFP_j = \bar{\pi} \times \sum_{j=1}^J \delta_j ex_j \times \sum_{j=1}^J \delta_j ado_j \quad (\text{식 4})$$

- (식 4)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가 미시적 생산성 증가($\bar{\pi}$), 산업별 가중평균 AI 노출도 ($\sum_{j=1}^J \delta_j ex_j$), 산업별 가중평균 AI 도입률 ($\sum_{j=1}^J \delta_j ado_j$) 등 3가지 항목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46) Acemoglu(2018), "The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ER, 2018, 108(6).

47) Aghion(2024), "AI and Growth: Where do we stand?", working paper.

nabO World Economy Trends & Issues

대외경제동향 & 이슈

2026년 6월호 | 통권 제6호

발행일 2026년 6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5-002148-08
ISSN	3059-152X

